

The·K

MONTHLY MAGAZINE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식물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



「꿈 너머 꿈」
청소년 환경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꿈꾸다
서울 송문중학교
신경준 환경 교사



「인생 이모작」
영어 교사 퇴직 후
통역봉사·야학교사로
여전히 '출근 중'
자원봉사자 광기근 회원

2022 **04**
vol.56

- ☞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민둥산을 푸른 금수강산으로, 나무와 나라를 사랑한 나무과학자 현신규 박사
- ⊕ 배움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직업에 징검다리 되어주는 진로 교육
- ✕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섬진청류 따라 펼쳐지는 절정의 봄 풍경, 꽃비 내리는 구례
- ☰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2021년 회원 87만 명·자산 53조 원, 투자 수익률 11.3%·준비금 적립률 110.5% 달성

04 여는 글
지속가능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 06 이달의 도움 회원**
- 08 The-K 예술가**
훅훅 날아가는 씨앗을 품고
어디서고 피어 나는 노란 민들레
- 10 에세이**
버스에서 나누는 제자들과의 소중한 情
- 12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식물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_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
- 16 역사 속 숨은 영웅**
민동산을 푸른 금수강산으로
_ 나무와 나라를 사랑한 나무과학자 현신규 박사
- 20 우리 어렸을 적에**
따끔했던 예방접종의 추억

- 발행일 2022년 4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근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이정우, 김경희, 황수현, 오수민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정라희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 22 오늘의 학교**
밥상머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진짜 교육
_ 서원대학교 융복합 학부 김정진 교수
- 26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직업에 징검다리 되어주는 진로 교육
- 30 미래 잡(job)자**
인간과 로봇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
- 32 꿈 너머 꿈**
청소년 환경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꿈꾸다
_ 서울 송문중학교 신경준 환경 교사
- 36 고민 상담소**
퇴근 후에도 쉴 수 없다,
‘슈드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 38 인생 이모작**
봉사는 희생 아닌 ‘행복’
남을 위한 일이 나에게 덕으로 돌아옵니다
_ 영어 교사 퇴직 후 통역봉사·야학교사로 여전히 ‘출근 중’
곽기곤 회원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 42** **방방곡곡 숨은 명소**
섬진청류 따라 펼쳐지는 절정의 봄 풍경
꽃비 내리는 구례
- 48** **마음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현명한 첫인상 활용법
- 50** **The-K 예방의학**
나른한 봄날,
무기력을 몰고 오는 '춘곤증' 이겨내기
- 52** **건강한 집밥**
봄을 전하는 향긋한 봄나물
봄내음 머금은 봄나물 별미 음식
- 56** **DIY 리사이클링**
'바싼 쓰레기' 폐가족의 화려한 부활
식물성 가죽 개발과 업사이클링 가죽 패션의 등장
_ 버려지는 가죽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 60** **The-K Focus 1**
2021년 회원 87만 명·자산 53조 원,
투자 수익률 11.3%·준비금 적립률 110.5% 달성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2021년 결산 편
- 64** **The-K Focus 2**
One&Only 오직 교육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생명보험
튼튼하고 안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종합복지급여' 특집 편
- 68** **The-K Focus 3**
"회원님과 함께 만드는 The-K 매거진,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는 2021년 만족도 조사
-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76** **회원 의견**
- 80** **4월호 초성 퀴즈**
- 81** **스승의 날 이벤트**
- 82** **온라인에서 만나는 「The-K 매거진」 이벤트**
- 83** **즉석 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지속가능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푸르름을 준비하는 4월은 우리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4월의 기념일로 식목일이 알려졌지만, 녹색 연합이 지정한 ‘종이 안 쓰는 날(2일)’, ‘지구의 날(22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계 중 가장 아름다운 봄이야말로 자연을 돌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행복감과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고이 넘겨주는 것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조림 수종을 개발해서 척박한 민둥산을 녹색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친

육종학자 현신규 박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역사 속 숨은 영웅」을 통해 함께 기리고

식물의 모습을 예술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를 「좋은 사람 좋은 생각」에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환경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신경준 교사의 절약하는 행복한 삶에 공감하며

은퇴 후에도 재능을 아끼지 않고 야학 교사, 관광지 통역사로 1만 시간을 훌쩍 넘긴

무료 봉사를 하며 무엇이든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광기곤 회원의 따뜻한 이야기도 만나봅니다.

봄철 입맛을 살려주는 특별한 나물 요리법과 함께 ‘비싼 쓰레기’로 불리는 폐가족의 대안으로 등장한 식물성 가족,

힙(Hip)한 패션으로 변신한 자동차 가족시트 등을 소개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족을 활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도 제안합니다.

공제회 소식에서는 창립 50주년이었던 지난 2021년, 회원 87만 명·자산 53조 원,

투자 수익률 11.3%, 준비금 적립률 110.5%를 달성한 경영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안내하고,

27년간 교육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온 특별한 공제회 생명보험 종합복지급여의 역사와 그간의 노력,

코로나19에 발맞춰 달라진 각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The-K 매거진」에 대한 회원님들의 소중한고 의미 있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매거진이 될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The-K 매거진」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희망찬 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도움 회원

「The-K 매거진」에서는 매월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과 스태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희망차고 따뜻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이번 4월호 제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신 인터뷰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애써주신 도움 회원과 스태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단체사진입니다.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남윤희 교육연구사

**“ 환경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

남윤희 연구사는 「꿈 너머 꿈」의 주인공 신경준 교사와 한국 환경교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해온 동료이자 동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진천 서전고등학교에서 환경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개관과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떠났어도 그가 하는 일은 여전히 환경교육 '외길'입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연구사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꼭 필요한데, 환경 교사는 워낙 소수잖아요. 교과에 대한 사명감이 그래서 매우 강해요. 전국의 환경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던 날들이 몽클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교사모임에서 진정한 상생을 배웠어요.”

남윤희 연구사도, 신경준 교사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라는 것이 문득 고맙습니다.



신혜우 박사의 양친 신영철 님 · 임선형 님

**“ 관심사를 존중한 탐구·체험교육이
자녀의 성장을 이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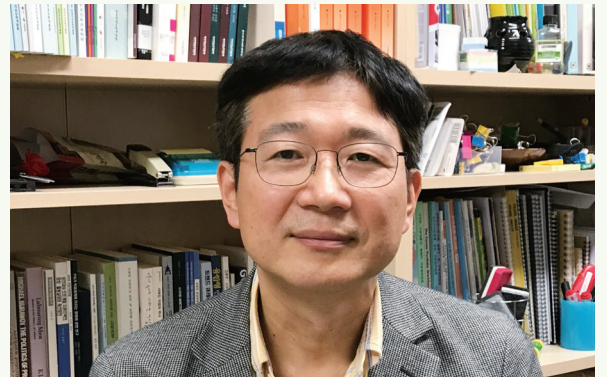
이번 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에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가 소개됐습니다. 식물분류학 박사이자 보태니컬(botanical) 아티스트라는 특별한 재능과 이력을 소유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림에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쓰기를 사랑하셨던 어머니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비엔날레 전시, 인사동 화방 거리를 다니셨고 집에는 늘 책과 원고지가 가득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신 부모님은 집안 가득 반려 식물을 키우셨는데 특히 아버지는 여행을 통해 식물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식물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오빠는 '식물 파괴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부모님은 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신 박사는 “어머니의 교육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머니의 못 이룬 꿈만큼 더 노력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재한유엔기념공원 황순비 홍보담당자

“늘 성심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껴요”

황순비 홍보담당자는 영어 교사로 퇴직 후 통역 봉사 활동을 하는 광기곤 회원과 편집실의 만남을 연결하고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취재와 촬영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한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로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유엔군이 잠들어 있는 성지입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들을 맞이하고, 공원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 광기곤 회원과 황순비 홍보담당자는 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성심을 다해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자부심이 담긴 포부도 밝혔습니다. “참전용사나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상근 선임연구위원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에 도움 주는 소임 다할 것”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에 주목해야 할 직업과 진로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미래 잡(job)자」는 생소하고 특색 있는 직업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The-K 매거진」의 인기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2년째 꾸준히 맡아주신 주인공은 한상근 박사입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국가인재 개발정책과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진로 탐색이 절실한 청소년을 위해 『10살에 떠나는 미래 대탐험』 『Go Go! Job 월드』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직업전문가로서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달의 도움 스태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민진 사원



언제 어디서나 「The-K 매거진」을 편리하게 보실수 있도록 늘 열려있는 웹진·어플리케이션 운영 관리 업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하민진 사원입니다. 웹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디자인 제작과 회원 서비스 관련 업무를 맡은 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업무를 ‘회원 이벤트 운영’이라고 말합니다. 매월 반갑게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수많은 회원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야 하므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늘 신경 써서 일하지만,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회원 의견을 통해 감사 의견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껴요” 하 사원이 「The-K 매거진」에 대해 느끼는 특별함은 또 있습니다. “매월 회원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이 매거진에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 의견들을 매월 편집실과 개발팀 모두가 직접 검토하고 매거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우리 매거진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 사원은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애쓰고 더 많은 회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훽훽 날아가는 씨앗을 품고

어디서고 피어 나는 노란 민들레



Remember 16 | 권용복 (거제중학교)

아크릴, 유화, 72.7 x 53cm, 2016

작가 노트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 나에게 그 기억이 언제나 봄꽃에서 비롯된다.

지는 듯 다시 피고 소멸되는 듯하지만 다시 생성되는 봄꽃들. 어리지만 긴 생명의 힘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들꽃 같은 시

조
향
미

그런 꽃도 있었나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지만
혹 고요한 눈길 가진 사람은
야트막한 뒷산 양지 바른 풀밭을 천천히 걷다가
가만히 흔들리는 작은 꽃들을 만나게 되지
비바람 땡벌 속에서도 오히려 산들산들
무심한 발길에 밟히고 쓰러져도
홀홀 날아가는 씨앗을 품고
어디서고 피어 나는 노란 민들레
저 풀밭의 초롱한 눈으로 빛나는 하얀 별꽃
허리 굽혀 바라보면 눈물겨운 작은 세계

참, 그런 눈길 고요한 사람의 마을에는
들꽃처럼 숨결 낮은 시들도
철마다 알게 모르게 지고 핀다네

WRITER



조향미 시인은 1961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부산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0년 무크지 「전망」으로 등단했다. 「그 나무가 나에게 팔을 벌렸다」 「새의 마음」 「길보다 멀리 기다림은 뻗어 있네」 등의 시집을 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시에 담아왔고 그에게 시는 삶의 등불이었다. 시인이자 국어 교사인 그녀는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왔으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문학 이야기를 담은 「시인의 교실」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부산 총렬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버스에서 나누는 제자들과의 소중한 情

글 이우진 회원(안성 양진중학교 교사)

지난해 이맘때쯤 나는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배정되었다. 담임 배정이 된 날 사진과 이름을 비교해 가며 학생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고 상담을 하며 학생의 이름과 성격 등을 대략 파악해 가고 있었다. 사춘기 무렵 학생들이 으레 그렇듯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쑥스러워 대답도 잘 안 하고 슬쩍 피하곤 한다. 정말로 제대로 마음먹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힘들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나에게 이런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일이 생겼다. 어느 날 내가 탄 버스에 우리 반 학생 한 명이 올라탔다. 상담할 때도 질문에 조용히 “네...”만 연발하던 아이였다. 그 후 출근길에 만나는 아이를 며칠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선생님도 이 버스 타는데 너도 이 버스 타나 보네?” “네...” 우리 반 아이와 버스에서 나누는 대화 겸 인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버스 몇 분 간격이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주변 교사라서 학교에 빨리 가야 하거든.” “네..., 20분 전에도 버스가 있어요.” “이 아파트 사나 보네. 선생님은 저 아파트 사는데 앞으로 자주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담임교사와 학생의 의미 없는 대화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오늘 영어 시간에 단어 시험 보잖아요. 몇 문제 내실 거예요?” “응, 20문제 정도.” 그렇게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오니 조금은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 아이는 나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매일 버스에서 보는 학생과 말을 해야 하니 대화거리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이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사실 그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가정형편을 쉽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버스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 학생의 어려운 생활 환경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었고, 남은 문제집 여러 권을 챙겨주기도 했다. 물론 다른 학생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버스에서 내리면서 슬쩍 전해주었다.

학교에서 만나면 머뭇거리며 말도 잘 못 하는 아이가 버스에서는 대답 잘하는 아이로 변해가는 모습이 담임교사로서 참 고마웠다.

어느 날은 아이가 “선생님, 영어 문제집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학교 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라는 반가운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너무나 기뻐다.

버스를 타면 다른 반 학생과 다른 학년 학생도 많이 만난다. 버스에서 만날 때마다 밝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학생들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든다. 10년 넘도록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여러 학생과 가까워지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제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하지만 나처럼 소중한 경험이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 버스를 통해 아름다운 제자 사랑을 전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돈독한 정을 나누는 장면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보듬어주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세상을 꿈꿔본다. 나는 오늘도 밝고 해맑게 웃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버스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㉔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에세이」 「나도 칼럼니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업무 현장을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육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매거진에 실어드리겠습니다.

- ★ 원고 분량 : 원고지 12매 (A4 1매 반)
-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 마감일 : 매월 10일



식물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

봄, 피어나는 것의 계절이다. 겨우내 바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던 새싹이 봄비의 속삭임만으로 몸을 일으키고, 꼭꼭 숨었던 자연의 색(色)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식물학자이자 화가인 신혜우 박사에게는 이 계절이 매년 새롭게 느껴진다. 자연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눈과 손과 발도 분주해진다. 그리고 조금 늦게 새 학기를 맞이하듯 식물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준비를 한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의 일에 대한 열정과 함께 식물에 경외감을 느끼고 늘 배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식물의 자서전을 그리는 학자이자 예술가

신혜우 박사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로 통한다. 그는 학부 때 생물학을 공부하고, 식물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패션 디자인을 복수전공하기도 했다. 그러다 평소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지도교수가 식물을 그려보라고 제안하면서, 흑백으로 식물 그리는 일을 시작했다. “열심히 하면, 국내 식물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말이 그의 손을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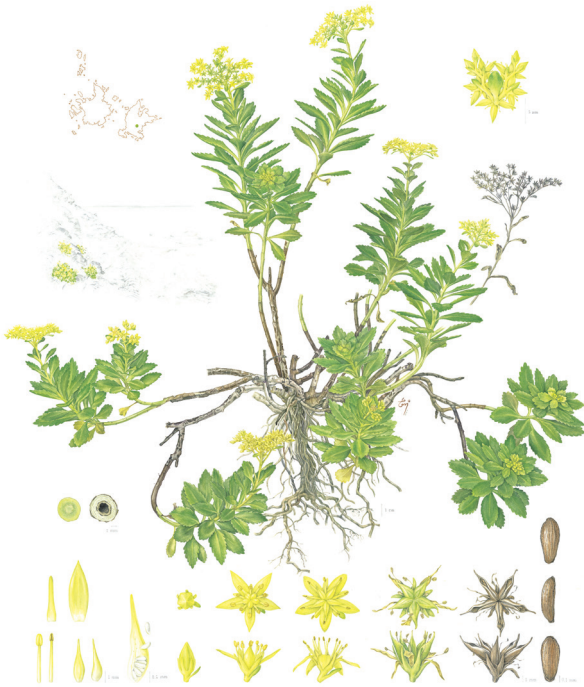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운명이었다. 좋아하는 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신혜우 박사에게 축복이기도 했다. 시켜서 그리고 좋아서 또 그렸다. 식물에 색을 입히고, 외국 박사의 작품들을 보며 점점 실력을 쌓았다. 작품을 평가받고자 국제 전시에 출품했다가 덜컥 상을 받기도 했다. 신혜우 박사는 2013년과 2014년 2018년 영국왕립원예협회의 식물세밀화 국제전시회에 참여해 세 번 모두 금메달과 최고전시상 트로피, 심사위원스페셜 트로피를 받은 유일한 박사다. 신혜우 박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에는 식물의 정보와 특징, 형태, 생애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이면서 식물의 자서전인 셈이다. 동·식물, 건물, 사물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세밀화나 식물 관련 예술 활동인 보테니컬(botanical) 아트를 하는 작가는 많지만, 신혜우 박사처럼 식물학자가 직접 식물을 그리는 일은 드물다. 그의 작업장도 조금 특별하다. 잘 깎여진 연필과 지우개, 물감 말고도 현미경, 표본, 식물도감 등이 집안 가득 놓여 있다. 식물이 서로 다른 종(種)을 존중하며 살듯, 그의 작업실에도 과학과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종이 조화롭게 공생한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작품으로 꽃피다

혹자는 “식물학자와 화가로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힘에 부치지 않느냐”라고 묻지만 여기에 신혜우 박사는 “굳이 두 분야를 나눌 필요도, 하나의 전공이나 직업에 매몰될 필요도 없다”라고 답한다.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한 식물 7종의 전 생애 과정을 담은 그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섬기린초'. 2018년 영국왕립원예협회 · 2019년 미국 메릴랜드 홀에서 전시됐다.

“저는 식물학과 그림이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학은 세부적으로 식물발생학·식물형태학·식물생태학·식물유전학·식물분류학 등의 여러 분과로 나뉩니다. 식물을 그리는 것은 그중 식물 형태를 설명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연구가 지루해질 때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지루해질 때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로서의 가능성은 아주 오래전 발아했다. 어릴 적부터 신혜우 박사는 어머니가 만든 정원과 베란다에서 오래도록 식물을 탐닉했다. 썩이 올라오는 봄이면 온종일 여린 쭉처럼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고, 여름이면 미루나무 아래에 서서 팔랑거리는 잎을 한참 올려다봤다. 아직 여물지 않은 꽃봉오리를 벌리고, 열매를 반으로 갈라 관찰하는 어린 신혜우 박사를 보고, 오빠는 ‘식물 파괴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식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식물학 연구로 이어졌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해져 오늘날의 열매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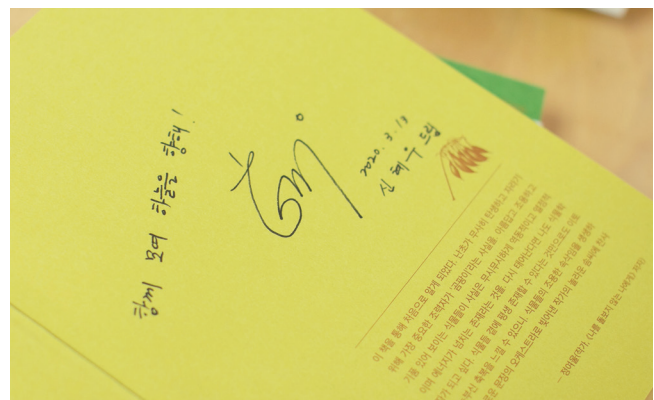
현재 신혜우 박사는 식물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식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연구 결과와 작품

을 남긴다. 가장 아름다운 식물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닌, ‘식물답게, 식물 그대로를 담은’ 그림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제 작품에서 감동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다만 제 생각에 제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공통적인 이유는 원래 그 식물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본래 식물이 아름다운 것이죠.”

식물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자연을 살게 하라

세계적으로 이름났지만, 상업적 활동은 최대한 자제한다. 형태학, 생태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물, 즉 기록으로 남겨야 할 식물을 먼저 그리는 것이 식물학자이자 박사로서 그의 원칙이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림일지라도 정확하게 그린다는 원칙도 있다. 관념적으로 꾸미지 않고, 식물 그대로를 진정성 있게 그려야 보는 사람도 아름답다고 여길 것이라는 믿음.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제가 80세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해도 평생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아요. 그리는 식물 중에 관해 조사하고 전 생애를 관찰하고 그림으로 옮기기까지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나 명예를 따지지 않고,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을 그리려 합니다.”

신혜우 박사가 바라는 것이 또 있다. 사람들이 기후 변화, 환경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식물이 매해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한다. 식물학자인 그의 눈에는 또 식물의 눈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식물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수많은 종이 함께 모여 하늘을 향해 서서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식물을 소비하죠.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은 바로 사람일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식물 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각심을 품지 않고요. 인간의 멸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듯 식물의 멸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모



덕수궁 전시를 위한 자료 조사표본집. 나무의 씨앗으로 그 나무의 위치를 표기했다.

사피엔스’도 하나의 식물도 동등한 하나의 종(種)이니까요.” 지금의 삶에 충실한 것, 하늘 위 오직 한 점을 바라보며 사는 것, 세상의 모든 종을 존중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 신혜우 박사는 식물을 닮았다. 여러 보이지만 한없이 강인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 강인함으로 그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식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위대함을 알릴 것이다. ㉠





민둥산을 푸른 금수강산으로, 나무와 나라를 사랑한 나무과학자 현신규 박사

척박한 땅에서도 빨리 잘 자랄 수 있는 조림 수종 개발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인 육종학자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 1953년부터 40여 년 동안 임학 교육과 함께 소나무와 포플러 육종에 쏟은 그의 순수한 열정은 임업 과학기술 발달의 견인차였으며 그가 개량한 조림 수종은 국토녹화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전당'에 헌액된 현신규 박사 소개 글 중)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역사 속 숨은 영웅은 험벗은 국토를 녹색으로 뒤덮기 위해 노력한 나무과학자 현신규 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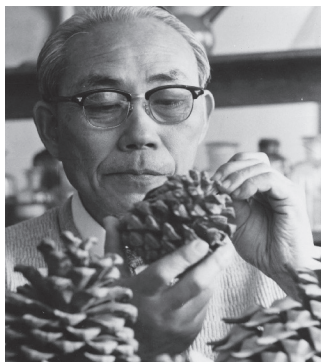
글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역사 교사

이경훈 역사 교사는 보라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과 화해를 연구하면서 「쟁점 한일사」, 「마주 보는 한일사(공저) 등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교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 재정위기를 넘겨준 기적의 소나무

1962년 7월 18일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 규모 삭감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한 데다 뚜렷한 경제발전도 없는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원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한 것이다. 이때 위스콘신 출신 상원의원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iley)는 한국 원조는 헛된 일이 아니었다면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기적의 소나무(Wonder Pine Tree)가 미국의 산림을 푸르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그 결과 원조 규모 삭감안은 부결되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기적의 소나무를 개발한 현신규 박사는 누구일까?



알렉산더 와일리의 의원 ◀
[출처: wisconsinhistory.org]

▶ 현신규 박사 모습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



사명을 품은 나무과학자가 되기까지

현신규 선생은 191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한학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성에 있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가 나무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 임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다. 현신규 선생은 형의 영향으로 철학과 문학을 전공해 일본 유학을 원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수원고농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고농은 조선총독부가 농림 분야에서 일할 관리와 조선 내 중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업 교육기관이었다.

수원고농은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당시로서는 상위 전문학교였다. 그러나 현신규 선생은 조선인으로서 받는 차별 뿐 아니라 공부 분야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방황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사명을 알려 하고 또 그 사명대로 살려 하거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곧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요,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천직이다.” 이후 현신규 선생은 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수원임학회’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학회지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다. 1933년 현신규 선생은 규슈제국대학(이하 규슈대학) 농학부 임학과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조림학을 전공으로 택한 그는 식물생리학을 함께 연구했다. 조림학은 임학이고 식물생리학은 농학 분야였지만 생리학이야말로 조림학의 기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신규 선생이 앞으로 임목육종학을 연구하는 기반이 되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하는 연구자의 삶

1936년 졸업과 함께 귀국한 현신규 선생은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조림과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이곳에서 ‘백두산록 자원조사대’의 일원으로 백두산의 임상(林相)을 조사하면서 임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했고, 개인적으로 소나무 조림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다. 그가 소나무를 연구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소나무가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국내 조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임업 시험장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던 그는 1943년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다시 규슈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였던 1945년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뒤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조교수로 교편을 잡으며 연구자료를 정돈해 규슈대학으로 보냈고, 1949년 한국인 최초로 임업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농을 개편)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현신규 선생을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근무 경력을 이유로 조선임업시험장 장장(場長)으로 임명했다. 임업시험장을 인수해 새로

정비하던 그는 한국전쟁으로 부산 피란길에 올랐다. 이때 한국 연구자를 미국에 초청하는 미국 국무부의 한국 재건 정책에 따라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림육종연구소로 연수를 갈 수 있었다. 이곳에서 세계 여러 수종을 교배해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현장을 목격한 그는 임목육종 기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때 육종 연구를 진행하던 소나무의 품종개량 연구에 착안해 한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리기테다소나무’ 개발에 성공했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목재의 질이 좋지 않은 리기다소나무와 목질이 고르고 생장력이 우수하지만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테다소나무의 장점을 물려받은 교잡종 소나무다. 현신규 선생이 개발한 리기테다소나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교잡종 나무로 평가받고 있다. 현신규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나무 속에 있는지 나무가 내 속에 있는지조차 모를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1960년대 초 경기도 문산역 부근 풍경은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을 연상시킨다.
[출처: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이경준·김의철, 기파랑, 2010, p.53]

혈벗은 국토에 푸른 옷을 입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를 남벌하면서 산림이 황폐해졌다. 심지어 소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까지 파헤쳐갔다. 군사용 유류 대용품으로 쓰고자 송진을 남김없이 채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더욱 극심해졌다. 전후 혼란과 가난, 행정 공백 상태에서 땀감으로 쓰기 위한 생계형 남벌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6년 당시 풀과 나무가 전혀 없는 독나지(禿裸地)가 전체 산림 면적의 10% 이상이었고, 민둥산이 전체 산림의 50% 이상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新品种 포플러를 설명하는 현신규 박사(1965)
[출처: 산림청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보도 자료.
故 현신규 박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은 현신규 선생을 농촌진흥청장에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농학자가 아닌 임학자를 임명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농촌 진흥이 산림 복구에 달려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현신규 선생은 산림 복구를 위해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면서 기존 소나무보다 생장이 빠른 리기테다소나무의 보급을 고려했으나 산림의 급속한 사막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시급하게 방지하기 위해 이보다 적합한 수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른 시일에 산을 푸르게 하는 속성수인 포플러가 척박한 산을 개선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포플러 품종을 도입했다. 재래종을 육종하기보다 외국산 품종을 도입해 국내에 적합하게 개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이태리포플러가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고 육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개량형 이태리포플러는 소나무의 10배, 낙엽송의 8배 정도 빨리 자라는 속성수의 특징을 한껏 드러내며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개량형 이태리포플러는 평지나 하천 부지에서만 잘 자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현신규 선생은 우리나라의 가파른 산악 지대에도 잘 자라는 나무 육종 개발의 필요성을



강원도 포천시 신북면 천전리에 조성된 은수원사시 조림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절감했다. 이때 유럽이 원산이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다른 포플러보다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 이미 토착화되어 있던 은백양나무와 당시 그가 재직하고 있던 임목육종연구소가 위치한 수원 근방에서 자생하는 재래종으로 산지의 조림수종으로 이용도가 높았던 수원사시나무에 주목했다. 은백양과 수원 사시나무를 몇 년간 잡종 교배해 육종 실험을 한 결과, 현신규 선생은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도 수입 개량종인 이태리포플러보다 성장력이 우수한 교배종 포플러를 개발했다. 이 교배종은 1968년 ‘은수원사시’로 명명되어 우리나라 산하에 널리 식재되었다. 은수원사시는 빨리 자라는 데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오염에도 견디는 힘이 강해 지금도 가로수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은 현신규 선생의 공로를 치하하며 5·16민족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을 따서 은수원사시를 ‘현사시’로 바꿔 부를 것을 제의했고, 이 때문에 한때 은수원사시는 현사시나무로 불리기도 했다.

국력이나 다름없는 ‘산림 부국’을 위한 헌신

현신규 선생은 학문적 성과를 곧바로 현장에 연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학자였다. 1953년 1월 미국 연수 이후 돌아오자마자 당시 부산에 있던 피란 국회의 농림분과위원장 박정근 의원을 만나 “전쟁으로 파괴된 산을 하루빨리 복구

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아무 데서나 종자를 채취해 조립하면 산림이 쇠퇴하니 조립은 반드시 개량된 품종으로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고, 소규모 예산을 지원받아 임목육종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했고, 1960년에는 한국임학회, 1969년에는 한국육종학회를 창설해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항상 “산림의 성쇠가 국력의 성쇠와 비례한다”라고 주장했다. 1965년 은사시나무 개발 독려차 임목육종연구소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농림부 산림국이 전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산림국을 산림부로 독립, 승격시켜 산림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으로 1967년 산림청이 신설되고 조림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대단기 조림으로 전환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임학 국제화와 세계화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 1954년 프랑스 파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래 리기테다소나무, 은사시나무 같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소개하면서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이끌었던 그의 노력은 1962년 미 의회에서 리기테다소나무를 기적의 소나무로 평가하며 미국의 원조 지속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62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1964년 3·1 문화상, 1978년 5·16 민족상, 198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현신규 선생의 노력 덕분에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량은 1947년 8.8m³/ha로 즉시 사방공사를 하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도 이상할 것 없었던 상태에서 2020년 현재 168.1m³/ha로 증가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 발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까지 25년간 헥타르당 임목 축적량은 1위 슬로베니아(116m³), 2위 폴란드(102m³)에 이어 한국(98m³)이 3위를 기록했다. 1982년 FAO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산림 부국을 위해 헌신한 현신규 선생을 기리며 2001년 4월 국립수목원 숲의명예전당에 헌액하고, 2003년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에 헌정했다. ㉔

따가 **했던 예방접종의 추억**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꼽으라면 방역 소독과 예방주사를 들 수 있다. 방역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소리를 지르며 하얀 연기를 뒤쫓아 뛰어다니곤 했다.

예방접종은 마을의 중요한 행사였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지역 주민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었다. 학교에서는 양호 선생님이 학급 학생들을 줄 세운 뒤 예방주사를 놓았는데 철마다 각종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피를 부리거나 더러는 울기도 하며 어떻게 든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이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만큼 힘겨웠던 사람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며칠간 예방주사를 놔주는 양호교사였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중시했던 그 시절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되지 않았나 싶다. (K)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 **교내 방역 소독** (1972)

방역차가 학교 안에 들어와 소독약을 뿜어대고 있다.



○ **방역차 구경** (1970)

마을 어귀에 방역차가 들어서면 주위에 몰려 들어 흥미롭게 구경하며 떠들어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리곤 했다.





○ 마을 예방접종 (1969)

국립의료원 앞마당에 방역 천막을 세우고
시민을 대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보건소 예방주사 (1969)

동네 보건소 앞에 설치한 예방접종 천막에서
주민들이 차를 기다리며 주사를 맞고 있다.
우는 아이와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표정이
다채롭다.



○ 학교 예방접종 (1970)

양호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예방
주사를 놓아주고 있다.
주사를 맞는 아이의 아파하는 표정과
기다리는 아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대조를 이룬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어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밥상머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진짜 교육

서원대학교 융복합 학부 김정진 교수



“조용히 하고 빨리 먹어!” 어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주 듣던 훈계이다.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 김정진 교수는 오히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 시간을 토론의 장으로 만든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밥상머리 교육이 일으키는 아이들의 변화. 그 이야기를 교육학자 김정진 교수에게 들었다.

글 정리희 / 사진 성민하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EBS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출연 모습

우리 집의 작은 기적을 일으킨 밥상머리 교육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했던가. 교육학자 김정진 교수가 밥상머리 교육에 몰입한 계기는 학자의 호기심만은 아니었다. 주말부부를 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던 시절, 주말에 겨우 얼굴을 마주한 자녀들과 부딪히는 크고 작은 갈등을 풀고 싶은 바람이 새로운 교육법에 눈을 돌리게 했다.

“저는 성격이 급한데 우리 딸은 내성적이고 느긋한 편이에요. 무언가 물어봐도 바로 답을 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이를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이의 공책에 적힌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고민하다 밥상머리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요.”

그때가 2015년. 대학에서 교육하는 사람임에도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 자진해 아버지 학교에 들어갔지만, 약발은 길지 않았다. 자녀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싶은 아빠의 절박함이 방법을 찾게 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이 부모임에도, 정작 많은 부모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학에서도 부모 교육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가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부모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학위를 받은 학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다. 출발점은 유대인의 하브루타(Havruta)였다. ‘친구’라는 의미의 하베르에서 파생한 용어인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가정에서는 주로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유대인은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한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재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재로 부모가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탈무드와 성경이 일종의 토크 박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를 주제로 하는 하브루타는 아무래도 한국인의 교육에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후에는 신문을 활용해 토론을 이어갔다.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났을 무렵, 변화가 일어났다. 아빠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먼저 ‘토론하고 싶다’며 다가온 것이다. 이후로 김정진 교수 가족의 식사 시간은 지적인 세미나 현장으로 변했다.

밥상머리에서 시작되는 명문가의 가정교육

김정진 교수는 “알려진 명문가 역시 신문을 읽고 식사 시간에 가족끼리 토론을 자주 했다”라고 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배출한 케네디가(家)다.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식탁 근처 게시판에 그날 주요 기사를 스크랩해 붙여놓고, 식사 시간에는 기사와 관련한 대화를 이끌었다. 식탁에서 토론하는 일상은 자연스럽게 통찰력과 발표력을 키워주었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려면 준비 과정이 길어요. 평범하게 평소 생활과 생각을 물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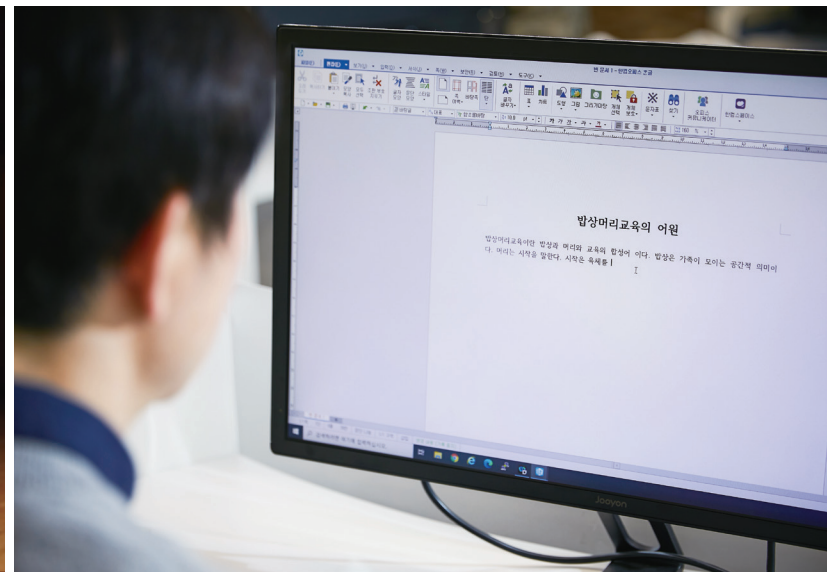
“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하고, 부모는 그 답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나간다.

”

'일주일에 한 시간 아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 2018년 강연 모습
 [출처:세바시 강연 Sebasl Talk 공식유튜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초반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이야깃거리를 끄집어낼 토크 박스가 필요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라면 신문을 읽게 하고 식사 자리에서 부모가 사회자가 되어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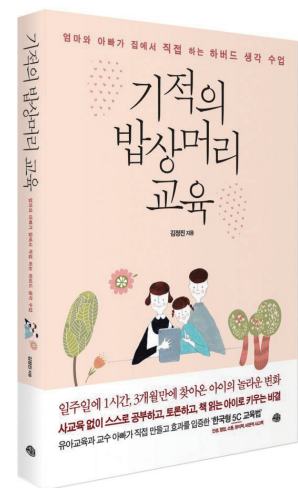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 역시 자녀교육에 관심을 두고 식사 자리에서 삶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을 나누는 한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로 교육을 병행한 것이다. 7년째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진 교수 가족 역시 이제 식탁에서 대화하는 일이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평일에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신문 하나를 나눠 읽고 각자 질문을 세 개씩 적습니다. 그렇게 12개의 질문을 뽑아 한 시간 동안 대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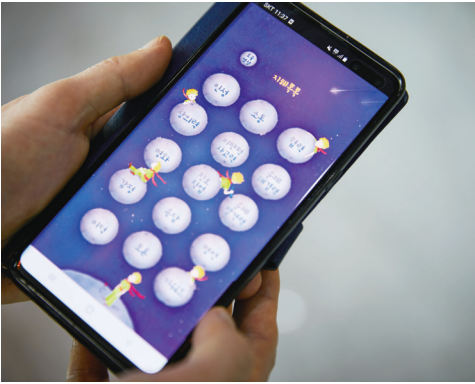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하기 어렵고 친구들과도 나눌 수 없는 특별한 대화의 경험. 이런 시간을 통해 부모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넘어 지혜를 물려준다.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부모는 질문을 던질 뿐, 답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질문에 답하고, 부모는 그 답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나간다.

문답으로 아이와 친해지면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소통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저기서 말하는데도, 국내에서는 아직 밥상머리 교육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다. 사전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부모와의 예절 교육’으로 간단히 풀이하지만, 김정진 교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표현에 진짜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밥상’이 공간이라면 ‘머리’는 시작을 뜻한다. 즉 밥상에서 시작되는 교육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 김정진 교수는 KBS1 ‘한국인의 밥상’ 10주년 특집기획 편에 출연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오랜 기록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대외 일정을 소화하기 바빴던

“
 부모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어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갈 것이다.
 ”





무료 공개한 한국형 탈무드 '지혜 톡톡' 어플

세종대왕이 하루에 무려 세 차례 세자와 식사하며 공부를 가르쳤다는 내용은 부모와 자식 간 전통예절이 침묵에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조선인의 가정을 일본화하기 위해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우리말을 쓰니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웠지요.”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끊어진 대화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정진 교수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더 많은 부모와 나누고자 『아이는 질문으로 자란다』 『최고의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등 대중교양서를 쓰는 한편, 실제 밥상머리 교육에서 톡 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한 한국형 탈무드 ‘지혜 톡톡’은 15개 카테고리 안에 1,500개의 사진과 4,500개의 질문을 담았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고(故) 이어령 박사가 직접 살펴보고 추천사를 썼다.

“어릴 때 질문 대왕이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생을 보살피어야 하니 모든 질문에 반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김정진 교수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잘하려면 “먼저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밥이 육체를 키운다면 밥상머리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들의 생각을 자라게 한다. 부모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어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갈 것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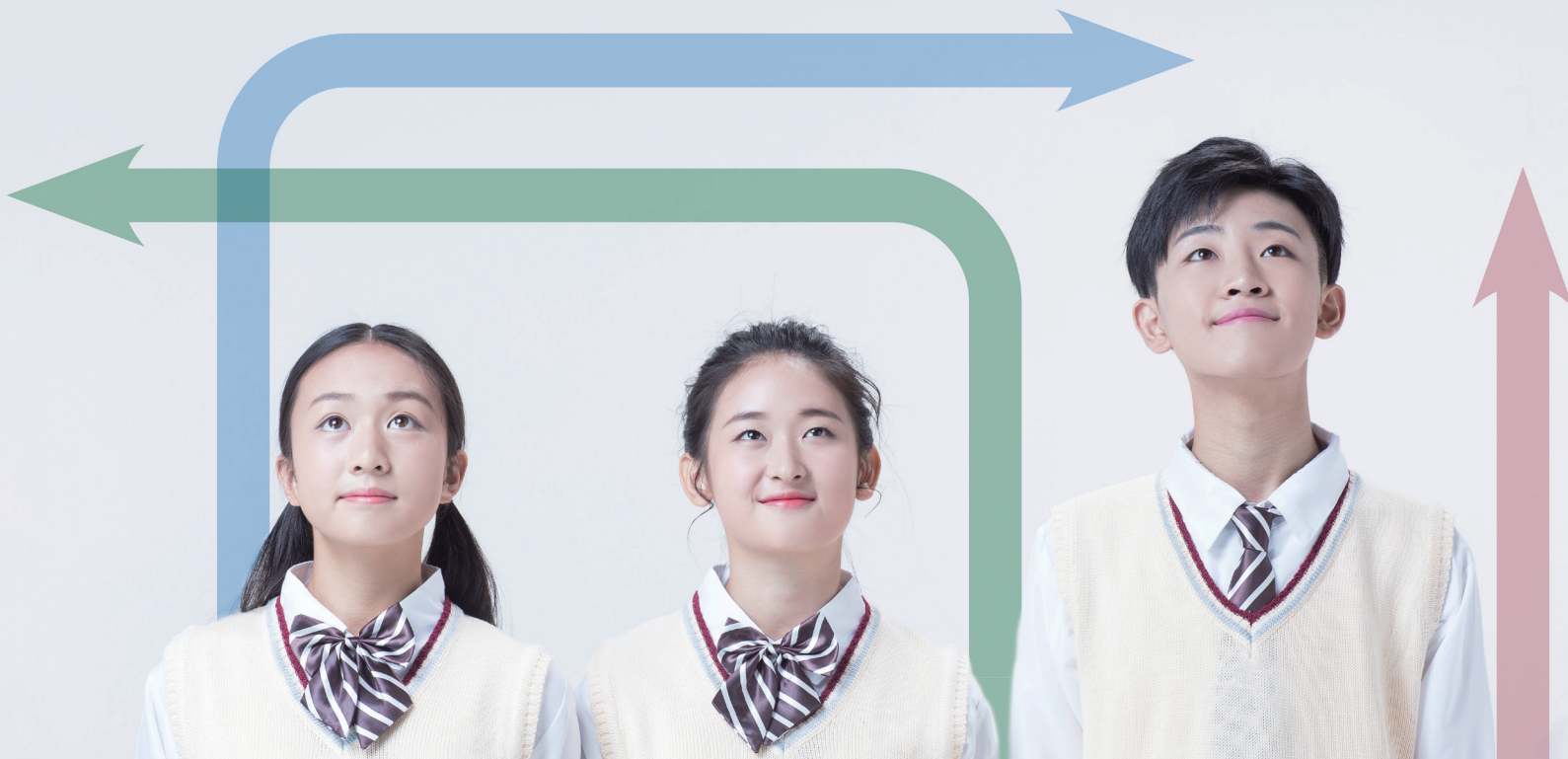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직업에 징검다리 되어주는 진로 교육

“그래도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한때 2030세대에서 우스갯소리로 유행한 말이다. ‘나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 태풍은 갈 길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 부럽다’는 뜻이다. 이 한 마디에 서른이 되도록 진로와 직업, 적성을 찾지 못해 고뇌하는 어른들의 회한이 담겨 있다. 고뇌의 시작점이 되는 청소년 시기 진로 탐색과 방향 설정이 의미있게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적성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고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이뤄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지윤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기자





진로 교육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

진로교육은 공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총론 주요 사항 시안을 보면, 2025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자유학년제 대신 자유학기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1학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대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된다. 즉,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학교 1년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3학년 2학기 등으로 변경된다.

애초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직업 교육에 집중하는 시기로 2016년 전국 중학교에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전국 대부분 중학교가 기간을 늘린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데 학부모 사이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너무 일찍부터 진로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직업교육에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새로 도입될 진로 연계학기에는 학생들이 진로 설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유학기에는 진로 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고입을 앞둔 중3 마지막 학기에는 진로 설계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미리 계획하며 선택 과목을 설계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정책의 모양이 조금씩 변화하는 이유는 결국 ‘진로·직업 교육’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직업 교육의 ‘진짜’ 의미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이 시작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옷 입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진로 체험 끝’이라는 냉소적인 말도 돌았다. 한편 지난 2016년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직업인과의 하루’ 등 관련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열리기도 했다.

한데 취재하면서 살펴보니 이렇듯 보여주기식 진로·직업 교육만 있는 건 아니었다.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는 실제 사례도 많았다.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돕되 한 아이의 인생에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훑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를테면, 꼭 기술직을 꿈꾸지 않아도 미장 수업을 통해 삶의 기술을 터득하게 한다든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익혀 장인이 된 멘토에게 직업 철학에 관해 들어보고 ‘먹고사는 현장’의 엄중함을 배우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크리킨디센터나 노원상상이룸센터 같은 곳에서 진행한 ‘마스터클래스 미장 수업’, 지역과 학교가 손잡고 아이들을 위한 진로 투어를 만든 사례는 진로·직업 교육이 꼭 화려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동네 약국, 집 근처 슈퍼나 부동산에서 일하는 어른들과도 가능한 것이 진로·직업 교육인 것이다.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는 진로와 진학이 같은 말로 쓰이지만, 사실 진로 체험 교육의 목적은 ‘어느 대학에 가야 한다’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있다. 주변 어른들이 동네 슈퍼, 약국, 부동산, 가맹점 등에서 실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접 질문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진로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라는 뜻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 학생 진로·직업 교육도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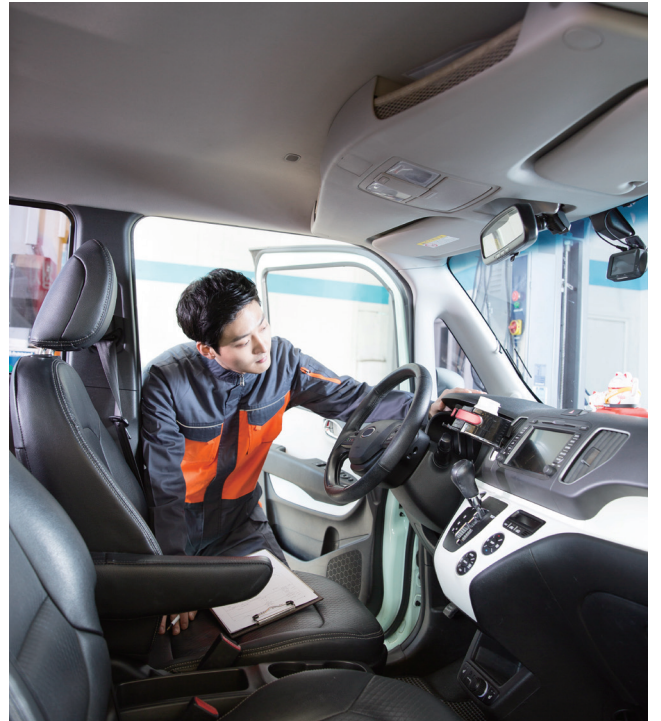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직업 교육도 매우 시급하다.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에게도 진로를 고민할 기회가 필요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은 ‘진로 교육=입시’라는 높은 벽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다문화 학생이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16만56명으로, 전체 학생 중 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1만1,371명으로 70%에 달했고 중학생 3만3,950명, 고등학생 1만4,307명이다.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2006년만 해도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15년 만에 16배 증가한 것이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문 진로·직업 교육기관은 아직 한국 폴리텍다솜고등학교뿐이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는 학교 밖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도 많다. 이들 모두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아이들이다. 현재 다문화 학생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이들이 중·고등학교 등 진로·직업 교육이 절실한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 학습과 성장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남다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아이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부모 세대보다 대학 들어가기 쉬워졌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오히려 ‘남다른 길’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진로·직업 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특마고)와 전문대학이다. 특마고의 경우 일찌감치 자신만의 전문 분야와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일 것이고, 전문



대학은 2~3년제를 졸업하자마자 현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키워야 하므로 그렇다. 자격 과정 등을 압축해 제공하며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이유다.

진로·직업 교육에 관해 취재하면서 중·고교 시절부터 꿈이 확실한 경우 특마고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봤다. 군사·식품·문화예술 분야 국공립 특마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군사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10 대 1이 넘는다.

한국치즈과학고, 한국애니메이션고, 광주자동차설비공고 등도 손꼽히는 특마고다. 중학교 시절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면 고교 입학 뒤 곧바로 전공 관련 자격을 취득해 취업이 가능한 학교들이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4년제 대학교에 가지 않고 자동차 관련 전문대에 입학한다거나 승강기, 해양·조선, 화학, 제조·금형, 보건·치과 기술 계열에 입학한 학생들은 20대 초반에 이미 국가기술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뒤 해외 취업과 해외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남다른 길’로 여겨지는 까닭에 이런 분야를 준비하려면 손품과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한다. 직업 교육에 관한 인식과 위상이 높아져야 하는 까닭이다. ㉔

인간과 로봇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

로봇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로봇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공상과학(SF)영화에서 보았던 로봇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자아를 가지거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로봇 도입에 따른 노동자 대량 실직 같은 문제들이 미래의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로봇의 부정적 요인에 대해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고, 향후 로봇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로봇 윤리학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봇 윤리학자의 정의와 향후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상근 선임연구원



로봇 윤리의 바이블 '애시모브'의 3원칙

뛰어난 공상과학(SF) 소설가 아이작 애시모브(Isaac Asimov)는 로봇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❶ 로봇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행동하지 않으므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❷ 로봇은 1원칙에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❸ 로봇은 1·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1942년 로봇 윤리에 관한 고전이자 바이블 역할을 한 애시모브의 3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리 강령은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애시모브가 3원칙을 발표한 1942년과 현재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애시모브가 로봇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현재는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원칙이 되는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봇 윤리학자이다.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사람

그렇다면 로봇 윤리학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도 넘어야 할 높은 산이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 문제다. 대표적인 예를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광차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대로 주행하면 무단 횡단하는 여러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데, 우측으로 회전하면 인도에 있는 단 한 명만 죽는다. 이 상황에서 무고한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또는 여러 명의 행인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봇의 행동 규범을 만드는 도덕·윤리 담당

로봇 윤리학자들은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 작동과 관련한 윤리 기준은 물론 로봇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로봇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이와 관련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로봇 윤리학자의 몫이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을 로봇에게 던졌을 때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로봇을 만드는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연구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로봇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봇이 작동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로봇 윤리학자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갖춰야 한다. 로봇 윤리학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전자공학, 법학, 윤리학, 철학, 로봇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로봇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준비할 때

인공지능과 로봇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로봇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특히 기업에서는 사업적 목적 아래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들이 늘어나면서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로봇 수요도 늘고 있고 전 연령대로 로봇과의 접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로봇의 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도덕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㉔

청소년 환경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꿈꾸다

서울 송문중학교 신경준 환경 교사

신경준 교사는 환경 교사를 한국 교육계의 '멸종위기종'이라 부른다. 자연생태계에서는 500개체 수 미만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는데, 전국 50만 교원 가운데 환경 교사는 고작 37명이기 때문이다. 그중 서울 유일의 환경 교사인 그는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도록 꾸준히 이끌어왔다.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많은 사람에게 환경교육의 필요성도 열심히 설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며 오늘도 '앓을 삶으로' 지식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아름답고 부지런한 노력을 만나본다.

글 박현채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환경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2019)

생태 용량을 초과한 위기의 지구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은 더 그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들의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빨라지는 까닭이다. 2021년 7월 29일은 지구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가 발표한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이다. 생태 용량 초과란 인간이 사용하는 물·흙·공기 같은 자원의 소비가 지구의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다섯 달 동안 미래 세대의 것을 더욱 당겨쓰며 2021년을 마무리한 셈이다.

신경준 교사가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한국환경교사모임은 그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경 정의를 실천하는 지구 시민 양성을 위해, 현재와 미래 청소년의 환경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환경 교사들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말 그대로 환경 재난 시대예요. 동해안 산불로 큰 시름에 잠긴 지금, 지구촌 곳곳의 산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호주·아마존·그리스·터키 등에서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나이지리아와 중국은 홍수로, 미국은 토네이도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요. 기후 위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북극권 시베리아에서 초여름에 영상 38도를 기록하는가 하면, 캐나다에선 한겨울에 22도까지 올라가는 이변이 일어났죠. 지구 공동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의 시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많은 환경 교사가 필요한 이유

해외에서는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려는 환경교육의 발걸음이 매우 빠르다. 영국 노스오브 타인(North of Tyne) 지역은 학교마다 환경 교사 한 명씩을 배치했고, 이탈리아는 초·중·고 전 학년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기후환경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핀란드는 환경 과목을 선이수 9학점으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호주의 고등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든 학교는 이미 환경 과목을 배우고 있고,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40만 명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학교의 모든 과목에서 기후생태를 가르치도록 교육기본법이 바뀌었어요. 한국환경교사모임 소속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에코 주니어’ 3,700명이 온라인 국회토론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이야기한 것이 법 개정에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에코 주니어’의 지구촌 전등끄기 활동(2016)

2022년 현재 전국 50만 교원 가운데 환경 교사는 37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서울에선 제가 유일하거든요. 담당 과목에서 기후생태를 가르쳐야 하는 타 과목 교사들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겐 더 많은 환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에서 실천으로, 앞에서 삶으로

환경교육은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원은 ‘감성’이다. 생물종 다양성을 배우면서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단원인 만큼 이 과정을 배우는 데만 꼬박 두 달이 걸린다. 다음 단원은 자원과 에너지에 대해 공부하는 ‘지식’, 그 뒤를 잇는 단원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시스템 사고’다. 이후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고민하는 ‘환경 정의’ 단원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직접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행동과 실천’으로 귀결된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환경을 이야기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 환경에 대한 감성과 인식이 밑받침돼야 하는 시대다.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사회·문화·경제적 논점에서 폭넓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지향하는 환경교육이다.

“수업 첫 주에 환경 키워드 조사 발표 시간을 가져요. 의류 쓰레기, 플라스틱 수프, 업사이클링, 파리기후협약 1.5도, RE100, ESG, 생태 백신... 아이들이 발표한 이 주제들로 1년 수업을 꾸려갑니다.”

실천과 맞닿은 환경 수업의 힘

‘행동과 실천’ 단원이 아니어도, 신경준 교사의 모든 수업은 ‘실천’과 맞닿아 있다. 교내 생물 종 카드를 만들어 꽃과 나무와 새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루 15분 이상 흙길을 걸으며 꽃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어보게 하는 것, 각자 집에서 자기만의 작은 식물원을 만들게 한 뒤 그 공간들을 수업 시간에 소개하며 함께 즐기는 것 등 환경 감수성은 이런 과정에서 길러진다.

“‘자원과 에너지’ 수업을 통해선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 아침에 물걸레로 청소하는 게 하루를 가장 깨끗하게 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환경 정의’ 수업 때 아이들의 제안으로 안경값이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캄보디아에 각자의 폐안경을 기부했어요. 페트병 생수를 사지 않는 실험도 해봤는데, 92명의 학생이 일주일간 320ℓ의 물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비용을 아프리카에 식수를 지원하는 구호단체에 후원했죠.”

환경 실천이 몸에 밴 승문중학교 학생들은 가족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잔소리를 하곤 한다.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는 매번 가슴이 뛰다.

문학과 놀이 예술이 녹아든 융합 수업

신경준 교사의 수업은 말 그대로 ‘융합 수업’이다. 밤섬 람사르습지에 관해 공부하면서 밤섬의 경관을 묘사한 정약용의 한시 ‘하일용산잡시(夏日龍山雜詩)’를 알려주고, 과거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난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선이 그린 난지도 ‘금성평사(錦城平沙)’를 소개하는 식이다. 놀이도 심심찮게 한다. 그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착한 에너지 탐험’은



일종의 보드게임이다. 전국 2만 명 학생이 해마다 이 게임을 즐긴다. 어디서든 연락이 오면 그가 직접 택배를 이용해 대여해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을 ‘제로 에너지’로 디자인한 뒤 모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빙하가 사라지는 내일’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네 컷 만화를 그리기도 한다. 문학과 놀이와 예술이 그의 수업에 모두 녹아 있다.

“수업에서 파생된 동아리가 꽤 있어요. 밤샘 수업을 하면서 ‘밤샘의 기억’이란 이름의 숲속의 오케스트라가 생겼고, ‘자원과 에너지’ 단원을 마친 뒤 ‘플라스틱 히어로’라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 동아리가 생겼죠. ‘기후행동’은 기후 위기 수업 후에 생긴 팀이에요.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행동’에 동참하는 친구들입니다.”


절약하는 삶, 행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신경준 교사의 첫 전공은 건축학이다. 대학에서 태양광 건축을 공부하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건축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환경교육을 새로 공부했다. 송문중학교 환경교사로 부임한 건 2006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업 도중 속보로 접했는데, 때마침 ‘우리 집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자력은 과연 안전할까’ 등을 학습하던 그와 아이들은 생생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부터 전기에 의존하는 삶을 바꿀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공부했다. 2013년 중학교 기술 교과서의 대안에너지 관련 내용을 분석한 논문을 작성해 원자력에 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환경 교사는 매 순간 환경적 사고를 해요. 길을 걸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방을 청소할 때도 환경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 없지요. 피곤하긴커녕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좋아요.”

그가 생각하는 행복은 ‘절약’ 속에 있다. 지구 공동의 집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다행히 전망은 밝다. 환경교육을 통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알고 나면 그리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절약을 체화한 그들이 지구의 앞날을 환히 비출 것이다. ㉞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쉽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퇴근 후에도 쉴 수 없다

'슈드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24시간이 모자란 현대인이 넘쳐나고 있다. 퇴근 후에도 영어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악기를 다루는 등 정해진 일정 외에 계속해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이를 SNS에 인증까지 하는 생활 속 히어로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유독 부지런한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일지 모른다. 슈드비 콤플렉스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상태로 사회복지사, 교사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대치가 높은 직업군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목표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답일까? '~로서'의 강박적 책임감을 만들어내는 슈드비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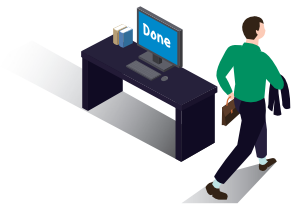
글 강일수 두디스 코칭 대표

쉬는 게 불안한 당신, 혹시 슈드비 콤플렉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르나이(Karen Horney)가 정립한 개념인 슈드비 콤플렉스는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신경쇠약(노이로제)에서 오는 슈드비 콤플렉스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슈드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뺀고 잠을 잘 수 있다. 남들이 세워놓은 공식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비교해 자신이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을 왜 내가 해야 하지?’라는 물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삶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기를 납득시킬 ‘이유’와 ‘여유’가 없으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어부의 여유 VS 사업가의 욕망

남보다 조금 더 출세한 사업가가 여행 중에 한 어부를 만났다. 그런데 그 어부는 물고기는 잡는 등 마는 등,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꼴을 보다 못한 사업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제대로 물고기를 잡지 않소?”

그러자 어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업가를 보더니 말했다.

“오늘 뚝은 이미 다 잡았소.”

느긋한 그 어부가 못마땅한 사업가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더 많이 잡아놓으면 좋잖소?”

“그래서 뭐 하세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요. 그 돈으로 당신 배에 알맞은 발동기를 살 수 있고, 또 돈을 더 장만해 더 큰 그물을 갖출 수 있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당신도 나처럼 제법 부자가 될 수 있소.”

“그러고는 또 뭘 하지요?”

“편히 앉아 쉬면서 삶을 즐길 수 있지요. 나처럼 말이요. 물론 당신도 물고기를 쉬엄쉬엄 잡을 수 있고...”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지 않소.”

🚗 분주한 이유는 안 해도 되는 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

중국 속담에 ‘바지 벗고 방귀 똥다’라는 말이 있다. ‘쓸데없는 일’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과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활동과 일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는 “관리자의 90%가 조직이 선택한 주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생산적 ‘busyness(바쁨)’ 때문에 중요한 ‘business(기업)’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분주한 이유는 안 해도 되는 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분주하면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핵심 가치의 질이 떨어질 뿐이다.

🚗 지혜란 무엇을 간과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술

『순자(荀子)』의 정기(正己) 편에는 “쓸데없는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절대 자비를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꿀벌은 파리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다. 꿀벌은 꽃만 찾아다닌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혜란 무엇을 간과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다. 정보나 지식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또 모든 걸 다 가질 필요도 없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소유 양식’이 아닌 ‘존재 양식’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어진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생 최후의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열일곱 살 때 읽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길에 서 있을 것이다”라는 경구에 감명받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물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오!’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생전에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내일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라”라고 강조했다. ㉞

A B  봉사는 희생 아닌 '행복'

남을 위한 일이 나에게 **덕으로** 돌아옵니다

영어 교사 퇴직 후 통역봉사·야학교사로 여전히 '출근 중' 곽기곤 회원

학교, 학원, 문화센터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곽기곤 회원에게는 유독 배움이 힘들었다. 가난, 전쟁 등 배움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배우는 과정은 남들보다 늦고 쉽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뜻은 누구보다 컸던 그는 결국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사가 되었다.

그러고는 한평생 아는 것은 무엇이든 나누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이어나간 배움의 끈, 교사로 매듭짓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자리한 재한유엔기념공원. 이곳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다. 한국전쟁 중 사망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 사이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보인다. 익숙한 장소에 온 듯 발걸음이 여유롭다. 그는 내방객에게 공원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자원봉사자, 광기곤 회원이다.

광기곤 회원은 1960년 경남 양산 동아제2중학교(현 물금동 아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1999년까지 부산 경남 여자고등학교에서 퇴임할 때까지 40년간 영어 교사로 일했다. 교사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들이 다 중학교에 입학해 책가방을 등에 질 때, 그는 혼자 나무 지계를 저야 했다. 가난 탓이었다. 게다가 얼마 안 가 전쟁이 터졌다. 고향인 경남 산청 땅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피란 후 그는 한약방에 취직했다. 약방 창밖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약재 봉투 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다 어느 날 더 견디지 못하고 “공부하겠다”라며 약방을 뛰쳐나왔다. 낮에는 20리 길을 걸어 다니며 신문을 팔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하며 학업을 이어나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차례로 따고 결국 대학까지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어렵게 공부했지만 남들은 그러지 않게 해줘야겠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다짐이었죠. 교사로 일하면서도 어쩌다 배움의 뜻을 놓친 사람들을 만나면 어렵게 공부한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줬습니다.”

봉사 1만 시간에 빛나는, 전문 자원봉사자

교사가 된 후로 광기곤 회원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가르친 학생 중에 교육감도 나오고, 한 학급에 4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그는 훈장처럼 제자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모으고 있는 훈장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자원봉사자 통장이다. 광기곤 회원은 품 안에서 주황색 통장 예닐곱 개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펼쳐 보인다. 꾸준히 봉사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매일 봉사 활동 시간을 누적해 표기하는 이 통장에는 ‘유엔기념공원 내 영어 안내’, ‘국제여객터미널 내 영어 통역 서비스 활동’, ‘영어 학습지도’, ‘해운대 일대 환경 정비 활동’ 등 자원봉사자로서 그의 활동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다.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1만 시간 가까이 부산 어디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그 말대로라면, 광기곤 회원은 봉사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자원봉사자로서 그의 첫 시간은 퇴직 이듬해인 2000년에 시작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해 왔는데, 선뜻 수락한 것이 시작이었다. 2007년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영어 자원봉사 단체 SEST(Senior English Service Team)에 가입해 시사영어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함께 했다. 유엔기념공원 봉사도 그 덕에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도시철도 부산역 등에서는 외국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도시를 안내했다. 문현동 소재 남부중앙고교 야학 교사로도 일했다. 그중 그가 가장 애착을 둔 곳은 역시 야학이었다.

“야학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 그런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바라보면 가르칠 맛이 나요.”



평생 가슴에 품었던 배움의 한을 그는 봉사로 승화하고 있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 고이 접어 나비가 되듯, 그의 한은 가르침이 되어 부산 지역 곳곳을 날아다닌다.

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봉사가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는 것을 보따리에 담아 다 가져가라고 하고 싶다. 조건 없이 다 주고만 싶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달리 봉사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시간과 안전이라는 조건이다. 3년 전 아내의 병이 깊어지면서 광기곤 회원에게는 봉사할 시간이 사라졌다. 그렇게 바깥일을 천천히 놓아버린 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활동이 줄고 공원 내 주요 시설도 잠정 폐쇄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펍 줄었다. 그러나 광기곤 회원이 봉사하던 자리에는 여전히 추억이 남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유엔기념공원 기념관 벽에는 전쟁 당시 사진이 쪽 걸려 있어요.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사진을 설명하다





보면 그들의 얼굴에 점점 감동이 차오르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럼 저도 뿌듯하죠. 한 번은 캐나다인이 '내 친구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라며 공원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걸린 사진에서 자기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전쟁 중에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면 친구가 무척 안타까워하던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얼마 후 사진 속 주인공이 공원을 찾아왔어요. 사진 속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감격스러워했죠. 제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자 봉사자로서 영광스러웠던 순간입니다.”

봉사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뿌듯함이다. 사람들에게 봉사를 권하는 이유도 봉사자로서 얻는 뿌듯함이 그 어떤 감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도 달콤하기 때문이다. 봉사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봉사 활동은 억지로 해서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남을 위해 일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 계속 봉사 활동을 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봉사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러니 나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저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 활동을 이어갈 겁니다.”

봉사에 빠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독일 것이다. 광기곤 회원에게도 봉사는 도저히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다. 그 이끌림은 앞으로도 광기곤 회원을 계속 자원봉사자로 살게 할 것이다. ㉔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섬진청류 따라 펼쳐지는 절정의 봄 풍경 꽃비 내리는 구례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 맑은 물이 옥도를 적시며 흐르다 쉬어가는 땅, 마침내 이곳 구례에 눈부신 꽃비가 내린다. 미풍에 흠날리는 연분홍 꽃잎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전망 좋은 산 정상의 암자, 울창한 강변 대나무숲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에 등장했던 고택 쌍산재까지 구례가 품은 아름다운 춘경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제공 구례군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브,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섬진강 벚꽃길

섬진강 벚꽃길 따라 산책해 볼까요



전라남도 구례군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자리 잡은 고장으로 북으로는 남원시, 남으로는 하동군과 인접해 있어 전북과 경남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외지인들에게 구례는 화엄사, 천은사 같은 고찰과 함께 The-K 지리산가족호텔이 위치한 산동면의 산수유 군락지 등으로 유명하지만 4월에는 반드시 섬진강 변을 찾아야 한다. 실핏줄처럼 흐르며 남도땅을 적시는 개울물이 모여 섬진강을 이루고, 그 물이 다시 수백 리를 달려 바다로 나서기 전 숨을 고르는 땅. 어느 시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김매는 촌부(村婦)의 그을린 이마에 흰하게 꽃등을 달아줄 것만 같은 고장 구례에서 섬진강에 가야할 이유는 무엇일까? 연분홍 벚꽃들이 봄의 절정을 노래하는 이 순간을 목도하지 않고서는 남도의 4월을 제대로 만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섬진강 변에 펼쳐지는 꽃비 내리는 풍경은 구례10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춘경이다.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 I.C로 나와 구례읍내 방향으로 17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 문척교를 건너면 벚꽃 드라이브 코스가 시작된다. 섬진강이 구례의 진산 오산(鰲山)의 치맛자락을 휘감아 흐르는 구간에 이르면, 수십 년 묵은 커다란 벚나무들이 화사한 꽃터널을 이룬 채 여행자를 인도하고 있다. 당연히 이 구간에 이르

게 된다면 차에서 잠시 내려 꽃길을 산책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10여 년 전만 해도 벚꽃 시즌이 되면 도로 양쪽으로 가득 주차된 차들이 많아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지금은 주차장(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33-3)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꽃놀이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하늘과 맞닿은 암자, 오산 사성암



섬진강을 굽어보고 있는 오산은 해발 531m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리산 남서쪽의 구례읍과 섬진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근사한 경치 때문에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자동차로 산 정상 바로 아래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땀 흘려 가며 등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장점. 물론 주말이나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에는 자동차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문척면 죽마리의 섬진강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는 편이 좋다. 바로 이 오산에는 백제성왕 22년인 544년에 연기조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암자 사성암(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이 숨겨져 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한 곳이라고 하여 사성암(四聖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산 정상의 절벽에 곡예를 하듯 절묘하게 매달린 사성암의 전각들은 툭툭 불거져 나온 바위들 사이에 건립되어 있어 더욱 신비감이 느껴진다. 이 바위 중 하나에는 높이 3.9m의 마애여래입상이 음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는데 10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은 유리광전 건물 뒤편으로 난 통창으로 볼 수 있다.



사성암 유리광전

다시 섬진강 변으로 내려와 강 너머로 가보자. 17번 국도변에 울창한 대나무숲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길이가 약 600m에 이르는 이 대숲은 일제강점기 사금을 채취하는 금광촌이 있던 자리로 당시 모래가 유실되었던 곳에 대나무를 심어 지금은 구례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밤에는 대숲 사이로 이어지는 호젓한 탐방로를 따라 설치된 조명시설을 통해 반짝이는 별빛의 바다에 빠져드는 환상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 섬진강 대숲길 입구에는 SNS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카페 라플라타(구례군 구례읍 산업로 270)가 위치한다. 섬진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이므로 한 번쯤 들러도 좋을 곳이다.

여백이 아름다운 고택 쌍산재



구례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택으로는 토지면에 위치한 곡전재와 운조루가 꼽히지만, 요즘은 쌍산재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지난해 TV 예능 프로그램인 ‘윤스테이’ 촬영지로 등장한 쌍산재(www.ssangsanje.com)는

사실 오래전부터 전통가옥을 활용한 숙박시설로 명성이 높았다.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에 자리 잡은 이 고택은 집주인의 고조부의 호 ‘쌍산(雙山)’을 따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입구를 통과하면 왼편 관리동 건물에서 입장료 1만 원을 받는다. 입장료에는 웰컴 티(커피 혹은 차) 값이 포함되어 있다. 뒤돌아서면 안채, 사랑채 그리고 건너채 등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방문객은 이 건물들의 마루나 그 앞에 놓인 평상에서 커피와 차를 마신다. 입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에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관리동과 장독대 사이로 난 오솔길을 밟아 몇 걸음만 올라가면 울창한 대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호서정이 기다린다. 여기서 티타임을 가져도 좋지만 죽노차밭길이라 명명된 오솔길을 따라 끝까지 올라보길 권한다. 지리산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The-K 지리산가족호텔(061-783-8100)을 추천한다. 2020년 말 전체 리모델링으로 내부와 외관 모두 깔끔하고 리조트 형 호텔로 주방에서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다.



쌍산재 관리동



호서정



The-K 지리산가족호텔



화엄사

쌍산재의 백미는 ‘여백’에 있다. 총 9채의 건물을 거느리고 있는 쌍산재를 품은 부지의 면적은 무려 16,000㎡에 달할 정도로 넓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짐작하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차 마시고 산책하며 대숲의 청량함에 젖었다가 새초롬하게 피어난 동백꽃을 감상하느라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입장을 마감한다는 점 염두에 두도록 하자.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지리산이 품은 고찰 두 곳



구례에 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찰 두 곳이 있다. 화엄사와 천은사가 바로 그곳이다.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한 화엄사는 고색창연한 각황전을 비롯하여 4점의 국보, 5점의 보물을 보유한 사찰로 천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증축과 재건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중에서도 국보로 지정된 각황전의 경우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 목조건물로 정면 7칸, 측면 5칸 규모로 지은 2층 건물은 그야말로 웅장함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천은사는 지난해 산악구조대가 등장하는 TV 드라마 <지리산>과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알려졌지만 앞서 소개한 화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명찰이다. 828년 인도 승려 덕운이 창건한 천은사 역시 보물 제204호 극락

보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계곡을 가로질러 무지개다리처럼 놓인 수홍루는 지리산의 빼어난 산세와 함께 어우러져 절정의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천은사 수홍루



사찰에서 유래된 건강한 먹거리, 산채정식



산과 들에서 나는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과 버섯을 주재료로 풍성한 상차림을 선보이는 산채정식은 지리산이 내놓은 가장 건강한 웰빙 먹거리다. 구수하게 끓여낸 된장찌개를 비롯해 각종 장아찌류, 도토리묵, 생선구이, 깻잎, 명이나물 등에 갓 지은 고슬고슬한 술밥이 더해지면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산나물은 주로 절에서 채식을 위해 사용하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파일을 앞두고 절을 방문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가 대부분 산채비빔밥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밥에 다채로운 색의 향긋한 제철 나물을 얹고 그 위에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을 몇 방울 넣어 비비면 이만한 별식은 또 없을 것이다. 구례에서는 화엄사 진입로 주변과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에 산채 전문 식당이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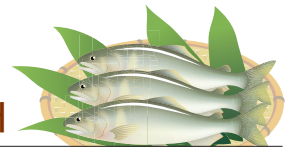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지리산 산닭구이



지리산의 들녘에서 키운 촌닭은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어 먹기 편할 뿐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지방 함량이 적어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실제로 산닭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구례의 식당들은 야외에서 방사해 키운 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촌닭으로 조리하는 산닭구이는 간을 했지만, 양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닭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며, 팬이 아닌 불판에 직화로 굽기 때문에 기름이 쏙 빠져 담백하기까지 하다.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테이블 위에 차려진 반찬의 색깔이 어우러져 오감이 즐거운 먹거리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산닭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는 산동면의 산들좋은촌닭과 당골식당 그리고 토지면의 당치민박산장 등이 있다.



속살에서 수박 향이 나는 섬진강 은어



비린내가 없고 담백한 맛 때문에 섬진강 주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은어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은어는 한반도를 비롯해 주로 극동지방에 서식하는 몸길이 20cm 가량의 어류로 바다에서 태어나 월동하던 치어가 벗꽃이 필 무렵인 4월부터 하천으로 올라와 상류로 이동하면서 여름 동안 성장하게 된다. 속살에서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는 예부터 그 맛이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왕실 진상품으로 여겨져 왔는데 현대에 와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맛보기가 쉬워졌다. 곡성, 구례를 거쳐 하동과 광양 사이를 흐르며 바다로 나가는 섬진강은 바로 이 은어의 주요 서식처이다. 은어는 보통 양념을 가미해 찜으로 먹거나 바삭하게 튀겨 먹기도 하는데 구례읍에 위치하는 남촌회관, 전원가든 등에서 은어요리를 맛볼 수 있다. (K)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현명한 첫인상 활용법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시작하며 새해 목표를 다짐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겨울에서 봄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시작은 여러분께 어떤 느낌과 이미지로 기억되시나요? 첫 느낌이 좋았다면 그때의 좋은 기운이 잘 유지되기를 바랄 테고, 다소 힘들었다면 분위기 반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좋지 않은 첫인상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단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심리를 위축시키고 부담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좋은 첫인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글 (주)다인



♣ 낮선 사람을 평가하는 마법의 시간, 0.017초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작동해 ‘첫인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폴 왈렌 (Paul J. Whale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의 학습이나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가 시각적으로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17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첫인상은 이후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찰나에 만들어진 첫인상이 부정적일 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배의 긍정적 정보량을 제공하거나 60회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첫인상 효과의 강력함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초두효과(Primary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습득된 정보보다 처음 입력된 정보가 평가 과정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초두효과와 예외를 살펴볼까요?

가상의 인물 A와 B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A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A를 아는 사람들은 A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A에게는 충동적인 면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A를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B도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B를 아는 사람들은 B를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충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B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A와 B 중에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끼시나요? 아마도 A를 선택하신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위 내용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 묘사된 내용은 같습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Solomon Ash)의 실험으로 첫인상이 이후 평가 과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며 초두

효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기에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의사소통 방법, 대인관계 기술 등의 사회적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학식이나 첫 출근날, 첫 미팅 자리에서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런 첫인상의 효과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첫인상에 대한 맹신은 '일반화 오류'

선생님과 학생들은 등교 첫 시간 서로에게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는다면 교실 분위기는 상당히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의 정확성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 중 외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요소가 주요 단서가 되어 첫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첫인상에 근거해 그 사람의 성격·능력·가치관 등을 판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은 한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표적인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험이나 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에 근거해 일반적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는 관련 없는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법

하지만 반대로 첫인상을 잘 활용한다면 예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예를 적용해 볼까요? 어느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몇 명의 학생에 대해 "이 학생들은 대기만성형이야"라고 긍정적 정보를 알려준 다음 한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해당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살펴본 결과 실제 성취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제공된 정보와 무관하게 평균 범주에 속해 있었으나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반영되어 높은 성취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기대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생이 어떤 행동 또는 학습을 하는 데 타인의 기대, 특히

교사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현상을 일컬어 '자성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긍정적 사전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 경영에 초두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실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교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등교 시간에 맞춰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교실에 들어올 때 좋은 기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와 함께 학생 평가에 초두효과로 인한 인지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매일 만나는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다양한 면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마음 건강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때 'The-K 마음심'을 찾아주세요! ☺

♥ 「The-K 마음심」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심 홈페이지 ▲

나른한 봄날, 무기력을 몰고 오는 Zzz '춘곤증' 이겨내기

어느새 따뜻한 햇볕이 가득한 봄이 찾아왔다. 봄날의 행복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함께 따라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도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곧 나아지겠지' 하며 넘기기에는 피로감은 물론 집중력 저하, 나른함,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증, 두통, 눈의 피로 같은 증상까지 나타나며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3주 이상 지속하면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춘곤증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원인은 계절 변화로 달라진 생체리듬 >>>>>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은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 변화를 겪는다.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겨울에 생체리듬과 신진대사 기능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봄이 오면서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자 몸이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수면 시간 감소와 신체 활동량 증가가 있다. 신진대사도 활발해져 이전보다

비타민·무기질·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 소모가 증가한다. 이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춘곤증을 더욱 심하게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온이 오름으로써 근육이 이완돼 신체 자체도 이전보다 나른함을 느끼기 쉽다. 춘곤증은 질병은 아니며, 계절 변화로 잠깐 나타나는 몸의 불균형 상태다. 다만,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질병이 원인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한 달 이상 피곤하다면 춘곤증 아닐 수도 >>>>>>

이때는 갑상샘 기능 장애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피로와 함께 몸이 붓고, 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체중이 늘면 갑상샘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 '갑상샘기능저하증'이거나, 반대로 피로와 함께 체중이 줄고,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리면 갑상샘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갑상샘 기능항진증'일 수 있다. 만약 갑상샘 기능 장애를 춘곤증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면 심부전,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고, 여성은 월경 주기나 양이 변하거나 조기폐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로감과 함께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액검사로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오랜 피로감은 만성피로 증후군, 섬유근육통, 초기 우울증, 갱년기 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빈혈, 당뇨병 등의 징후일 수 있다.

춘곤증 이기는 방법은? >>>>>>

춘곤증은 보통 3주 안에 사라지지만 좀 더 빨리 춘곤증을 이겨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방안을 실천해 보자.



적당한 비타민 공급

봄에는 특히 비타민 B군과 C의 소모량이 겨울보다 3~5배 증가한다. 피곤하면서 입맛이 없다면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으면 춘곤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은 보리, 콩, 달걀, 시금치, 견과류 등이 있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비타민 C 부족으로 활성산소가 쌓여서일 수 있다. 비타민 C는 감귤, 토마토, 딸기 등에 함유돼 있다. 봄에 나는 냉이, 썩갓, 달래 같은 나물을 풍부하게 먹는 것도 좋다. 비타민 B군·C와 함께 다양한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다.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 속 카페인이 일시적 각성 효과를 주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게 한다.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잘돼 무기력증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하는 만큼 가벼운 달리기, 점심 식사 후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회 30분 정도 하면 된다. 운동은 되도록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좋다.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춘곤증 완화를 돕기 때문이다.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

운동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기상 직후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전신의 근육을 천천히 움직인다. 잠을 자는 중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져 근육에 이산화탄소, 젖산 등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엎드려 누운 채 양손을 모아 이마 아래에 둔 뒤, 양팔로 바닥을 누르며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 자세를 4초간 유지한다. 이후 제자리에 돌아온 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두 다리를 들어 올려 4초간 유지한다. 근무 중에 춘곤증이 몰려온다면 발밑에 골판공 크기의 딱딱한 물건을 두고 지압하듯 발바닥을 자극한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해소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춘곤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으로는 턱관절 운동이 있다. 턱관절 주변으로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만큼 다른 관절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스트레칭 방법은 간단하다. 아, 에, 이, 오, 우 순으로 입 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취하면 된다. 동작을 천천히 해야 턱관절 연부 조직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7시간 이상 숙면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권장한다. 밤에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 피로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숙면을 위해 침실 온도를 25℃ 전후로 유지하고, 빛과 소음은 최소화한 환경을 조성하고, 너무 폭신한 침구는 피한다. 몸의 무거운 부분이 파묻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고, 자세가 틀어져 숙면을 방해한다. 생체리듬이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아침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낮잠 자기

20분 정도 짧은 낮잠도 춘곤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 다음 날 피로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K)

봄을 전하는 향긋한 봄나물 봄내음 머금은 봄나물 별미 음식

햇별이 따스해지나 싶더니, 바람마저 상쾌한 봄입니다. 나무에는 새순이 돋고, 곳곳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봄 하면 새 학기, 빗꽃, 봄 소풍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밥상에 올라온 향긋한 봄나물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봄나물을 살짝 간해 무쳐도 먹고, 볶아도 먹으면 떨어진 식욕이 절로 샘솟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나물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 우리 밥상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주지요. 무침이나 볶음만이 아니라 컵밥이나 샌드위치, 파스타와도 잘 어울리는 봄나물. 아이들도 꼭 빠질 특별한 별미 음식으로도 만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나른한 봄날, 식욕을 깨워주는 봄나물

봄이 되어 날이 좀 풀리니 나른하고 더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햇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싶지만 하지요. 향긋한 봄나물은 식욕을 돋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할뿐더러 장 건강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봄나물로 봄철 나른해진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봄나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달래부터 세발나물, 참나물, 깻잎 순, 머위, 취나물 등이 있어요. 특유의 향만큼이나 그 효능도 가지각색입니다.

쌉싸름 알싸한 매운맛, 달래

달래는 봄나물 중 철분이 가장 풍부한 나물입니다. 달래 100g에는 철분이 일일 섭취량의 6배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달래를 먹으면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베타카로틴도 다량 함유되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향을 품은 세발나물

세발나물은 바닷가 사람들이 봄이면 즐겨 먹는 나물로 깻벌의 염분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잎이 가늘고 길게 뻗어 자라며, 솔잎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쓴맛이 없고 특유의 담백한 맛을 자랑해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낮은 열량과 더불어 항산화 성분과 생리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싱그럽고 개운한 향, 참나물

마치 미나리와 셀러리의 좋은 점만 똑똑 뽑아 놓은 듯한 참나물은 특유의 향을 가진 산채 나물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부드러워 소화도 잘되며, 변비 예방이나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맑고 삼삼한 국물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쭉갓이나 미나리, 고수 대신 써도 맛이 매우 좋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깻잎 순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식재료인 깻잎은 향도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 쌈 채소나 조림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봄에 갓 자란 깻잎 순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밑반찬으로 활용되며, 깻잎 특유의 향은 페릴라케톤, 페릴라 알데하이드 등의 정유 성분인데, 이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깻잎을 생선회 등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해 안구 질환 예방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철분과 엽산을 다량 함유해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㉞



나물컵밥

코로나19만 아니라면 도시락을 챙겨 봄 소풍을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봄나물 향 가득 담은 컵밥으로라도 봄을 만끽해 보아요. 제철 봄나물을 이용해 고기와 함께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꾸릴 수 있는 컵밥입니다.



- 주재료 밥 한 공기, 깻잎 순 3줄, 소고기 200g, 달걀 1개
- 양념·소스 다진 마늘 1큰술, 들기름 약간, 깨소금 약간, 소금·후추 약간
- 고기 양념 간장 1큰술, 청주 1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후추 약간

* 좋아하는 봄나물을 더해 켜켜이 담아내도 좋아요.

* 만드는 방법

- 1 달걀은 반숙으로 조리한 뒤 소금물에 담가 냉장고에 넣어둔다.



- 2 소고기는 사방 0.7cm 크기로 손질해 양념에 재운다.

- 3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깻잎 순을 넣어 한 번만 슬쩍 뒤적인 다음 소금으로 간한다.



- 4 달군 팬에 2의 고기를 물기 없이 바삭 볶는다.



- 5 밥에 깨소금을 섞어 고슬고슬하게 비빈 뒤 컵에 담는다.

- 6 밥 위에 볶은 깻잎 순과 볶은 고기, 달걀을 얹어 완성한다.



참나물 파스타

풍미 가득한 마늘 향과 참나물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파스타입니다. 매콤한 페페론치노가 느끼함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좋아할 거예요.



- 주재료 파스타 면 150g, 참나물 40g
- 부재료 모시조개 300g, 마늘 4쪽
- 양념·소스 올리브유, 다진 마늘 2큰술, 페페론치노 혹은 마른 고추 약간, 소금 1/2큰술, 후추 약간, 월계수잎 1장

* 모시조개를 볶을 때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풍미가 더욱 좋아져요.

* 만드는 방법

- 1 참나물은 깨끗이 씻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 준비한다. 파스타 면은 적당히 삶는다.



- 2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담가 해감한다.



- 3 팬에 올리브유와 다진 마늘, 편 마늘을 넣고 볶다가 월계수잎을 넣는다.

- 4 마늘이 노릇해지면 모시조개와 페페론치노를 넣고 끓인다. 이때 파스타 면 삶은 물을 조금 넣는다.

- 5 조개가 익으면 삶은 파스타 면을 넣고 끓이다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 6 ⑤에 참나물을 넣고 살짝 볶은 뒤 접시에 담아 낸다.



세발나물 오픈 샌드위치

칼슘 함유량이 시금치의 20배가 된다는 세발나물은 살짝 데쳐 먹거나 샐러드, 비빔밥과 함께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아요. 오픈 샌드위치에 푸릇푸릇한 싱그러운 세발나물을 넣으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인답니다.



- **주재료** 세발나물 100g, 바게트 1개, 방울토마토 10개, 양파 1/4개
- **부재료** 파르메산 치즈 가루 약간, 블랙 올리브 약간
- **마늘 오일** 올리브유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파슬리 가루 약간
- **양념·소스** 발사믹 식초 2큰술, 올리브유 1/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소금·후추 약간

*세발나물 특유의 맛이 있으니 소금 간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 만드는 방법



- ① 세발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방울토마토와 올리브는 반으로 가른다. 양파는 채 썰어 물에 담갔다가 건져 잘게 자른다



- ② 마늘 오일을 반으로 가른 바게트 한쪽 면에 펴 바른다.
- ③ 달군 팬에 ②를 노릇하게 굽고, 방울토마토도 살짝 굽는다.



- ④ 볼에 세발나물, 양파, 방울토마토, 올리브를 넣은 뒤 소스를 넣고 섞는다.
- ⑤ 구운 바게트 위에 ④를 올리고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조금 뿌려 낸다.

'비싼 쓰레기' 폐가죽의 화려한 부활

식물성 가죽 개발과 업사이클링 가죽 패션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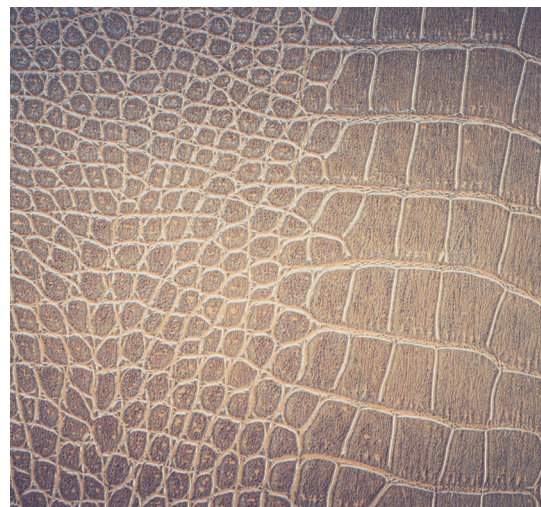


버려지는 가죽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옷과 가방 등의 소재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천연가죽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인조가죽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에코 레더'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조가죽 역시 화학섬유로 만들어 썩는 데 수백 년이 걸릴뿐더러 생산 과정에서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패션 기업, 자동차 회사 등에서는 동물과 환경을 함께 보호하면서 가죽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 개발에 애쓰며 폐가죽 재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버려지는 가죽을 활용한 생활 소품도 만들어봅니다.

글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동물 학대 · 탄소 배출, 가죽 소재의 민낯

튼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패션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죽. 하지만, 모피(Fur)와 함께 동물학대의 문제, 가죽 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고가의 명품 악어 백 하나를 만드는데 악어 세 마리가 희생되고 생산 과정 중 동물들은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등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가장 널리 쓰이는 소가죽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는 소화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지구촌 10억마리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65%에 이르고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계산하면 31억t에 이릅니다. 이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t, 2018년 기준)의 4배 이상입니다. 소가죽을 얻는 과정에서는 가죽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독성이 강한 화학 공정이 들어가고 염색을 위한 염료들이 환경을 또 다시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 환경, 인간이 모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천연가죽 대신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일명 '에코 레더'로 불리는 합성피혁, 재생가죽 등이 등장했죠. 하지만 착한 소비라는 이름으로 각광받던 재생가죽들은 과용되며 '비싼 쓰레기'의 배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탄소배출을 늘리는 천연가죽, 수 백년이 걸려야 썩는 재생 가죽 모두 친환경의 시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닥나무·선인장·버섯으로 만드는 식물성 비건 가죽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인조 가죽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식물성 비건 가죽(Vegan Leather)입니다. 자연 소재로 만드는 식물성 가죽은 생산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발생시키지 않고 생분해돼 환경 친화적이며,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체에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식물성 가죽 중 하나인 '한지 가죽'은 가죽을 대체하는 훌륭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닥나무 껍질을 활용한 한지 가죽은 동물성 가죽과 비슷한 질감이지만 가죽보다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에 버려지는 파인애플 잎사귀와 줄기를 이용해 만든 '피나텍스'는 영국의 카르멘 이호사(Carmen Hijosa)에 의해 2014년 만들어졌는데, 이는 자연 소재를 업사이클링 한 것으로 사용 후 땅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 환경에도 무해합니다. 이 밖에도 버섯으로 만들어진 버섯가죽 마이로(MYLO), 선인장 가죽 데세르토(Desserto) 등 내구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운 동물성 가죽 대체 가죽이 개발·사용되고 있습니다.

셀럽들도 선택하는 자동차 시트로 만든 가방

전 세계에서 매년 폐기되는 가죽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는 400만t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부속물들은 재활용되지 않



선인장으로 만들어진 선인장 가죽 가방



자동차 시트용 가죽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사진출처: 모어댄]

아 대부분 버려졌는데 최근 이 소재들의 재활용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 시트용 가죽은 마찰에 강하고 고온과 습기를 견딜 수 있게 가공됐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패션 기업 '모어댄'은 한국에 시트공장이 있는 포르쉐와 현대차·기아차는 물론, 벤틀리·페라리·람보르기니·BMW·포드·볼보 등에서 나오는 최고급 천연 가죽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폐수를 발생시키는 염색 과정은 생략하고 가죽을 깨끗이 세척한 뒤 건조하고 광을 냅니다. 국내외 패션 브랜드와 많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한국 가수 BTS의 한 멤버가 이 가방을 들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페라리의 시트로 만든 가방은 220만원대의 초고가임에도 사전예약에서 완판되기도 하는 등 자동차 시트 가방이 힙한 패션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중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리클로딩뱅크'와의 협업으로 폐기되는 자동차 가죽 시트를 활용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죽 소재를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버섯으로 만들어진 버섯 가죽 가방

입지 않는 옷의 가족을 재활용한 나만의 소품 만들기



다용도 수납 케이스



❶ 입지 않는 가족 의상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 후, 뒷면에 도안을 대고 재단선을 그려줍니다.



❷ 미리 그려 놓은 재단선을 따라 재단해주고 수납 공간을 만들어줄 날개 부분에 가죽 전용 본드로 고정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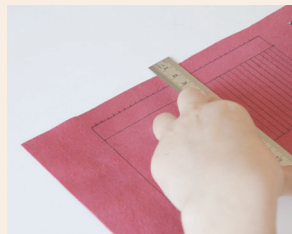
❸ 덮개 부분에 잠금 장치를 달고 핀 브로치와 색 포인트가 되는 스트랩을 더 하면 펜이나 선글라스 등 다용도 수납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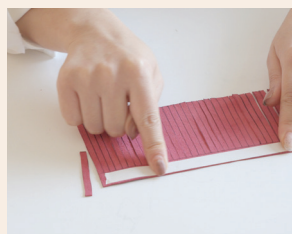
태슬 키링



❶ 입지 않는 가족 의상을 필요한 만큼 직사각형으로 자른 뒤 뒤집어 펼쳐줍니다.



❷ 윗면 1.5cm를 남기고 프린지가 될 부분을 5mm 간격으로 일정하게 줄을 그어줍니다.



❸ 그려놓은 줄을 따라 가죽을 잘라서 프린지를 만든 뒤 연결고리로 활용할 부분도 잘라서 준비합니다.



❹ 남겨놓은 1.5cm 부분에 양면 테이프나 가죽 본드를 이용해 고리가 될 부분에 키링고리를 연결해 한쪽 방향으로 돌돌 감아 주면서 붙입니다. 그 장식들을 해주면 태슬 키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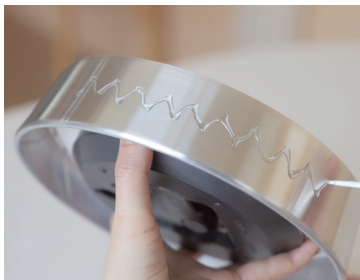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면 튼튼하고 다루기 쉬운 폐가죽으로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가죽 케이스, 열쇠고리, 가죽 벨트 스트랩 시계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가죽 벨트를 활용해 만든 스트랩 벽시계

감각적인 가죽 벨트 스트랩 벽시계



사용하지 않는 가죽 벨트와 벽시계를 준비해주세요. 접착력이 강한 본드를 벽시계 가장자리의 벨트가 지나가는 위치에 미리 발라주고 본드가 발린 위치에 벨트를 감아서 고정시켜 줍니다. 본드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가죽 벨트 스트랩으로 장식한 감각적인 시계가 완성됩니다. ㉞



2021년 회원 87만 명·자산 53조 원

투자 수익률 11.3%·준비금 적립률 110.5%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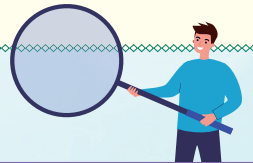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2021년 결산 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복지기관입니다. 회원들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포함하여 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평생에 걸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회원 7만 명, 자산 13억 원에 불과했으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2021년 말 기준 회원 87만여 명, 자산 53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및 불안정한 금융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자산 53조 원, 준비금 적립률 110.5%라는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하여 재무안정성을 한층 더 확고히 하였습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21년 주요 소식과 각종 성과들을 회원님들께 소개해드리며,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 수익 창출을 다짐하고, 약속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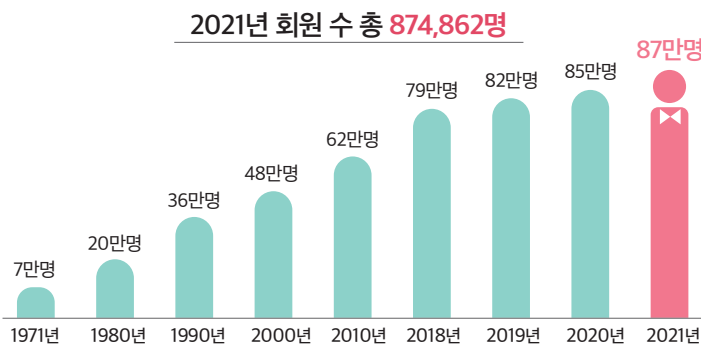
2021년 공제회 주요 소식 지난 한 해, 공제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020 한국공공기관 감사인 대회 최우수 기관상 수상 2월 국내 공제회 최초 외화자금운용시스템 구축 3월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The-K 매거진』 창립기념특집호 발간 4월 건강보험 2종 리모델링, 간편가입종합공제 출시
창립 50주년 기념 <더케이숲> 조성 캠페인 5월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개최
2020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6월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 발간
공제회 신임 상임감사 취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운영 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The-K 매거진』 전면 개편 및 정기구독 신설 등 10월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1월 LACP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제31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사(社史) 부문 대상 수상
제111회 대의원회 개최
목돈·퇴직생활급여율, 법인예탁급여율 인상
공제회-중앙교육연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12월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고 'A등급' 달성
공제회-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모바일 보험 청구 (전자청약) 시스템 개발 |
|---|---|



2021년 회원 수 얼마나 많은 교육 가족이 공제회와 함께 하고 있을까?

연도별 공제회 회원 수



일반회원 789,249명*

일반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기저축급여 또는 종합복지급여(보험)에 가입한 교직원

특별회원 85,613명

특별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로서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교직원

법인회원 146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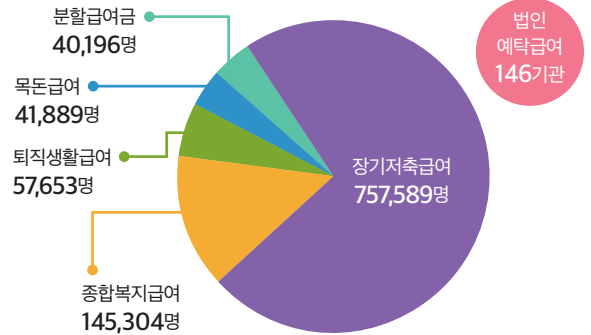
법인회원 가입자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한 법인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수 + 종합복지급여(순수) 가입자 수

제도별 가입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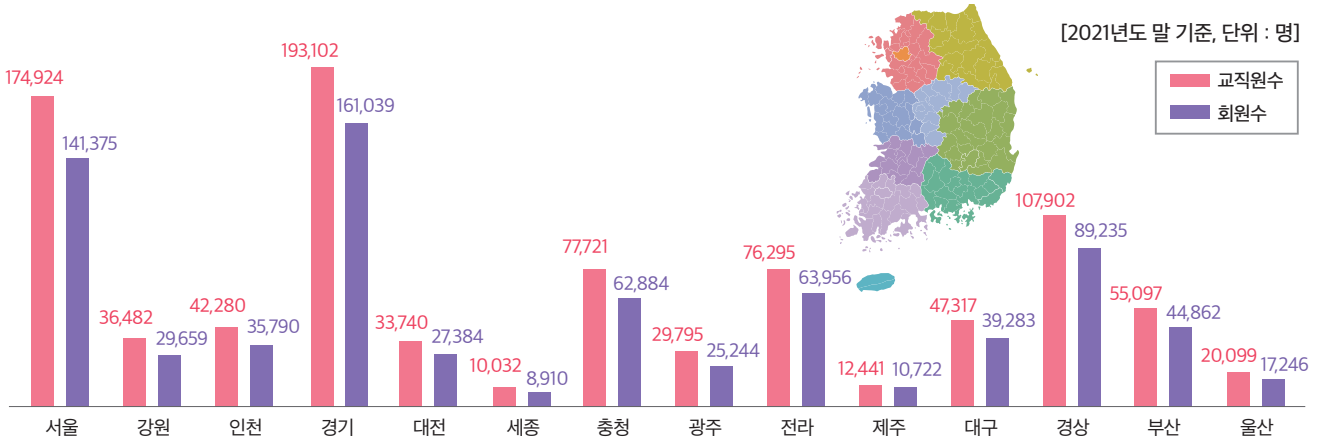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하고 계신 회원님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제회 대표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약 75만 명 정도 가입하셨습니다. 또한, 보험제도인 '종합복지급여'가 그 뒤로 14만 명, 은퇴하신 회원님을 위한 저축제도인 '퇴직생활급여'에 약 5만 명, 현직 회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제도인 '목돈급여'와 노후생활 보장제도인 '분할급여금'에 각각 4만 명씩 가입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회원 146기관이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했습니다.

전체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회원 수는 약 87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교육 가족들께서 공제회의 평생 금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교직원수 대비 전체 가입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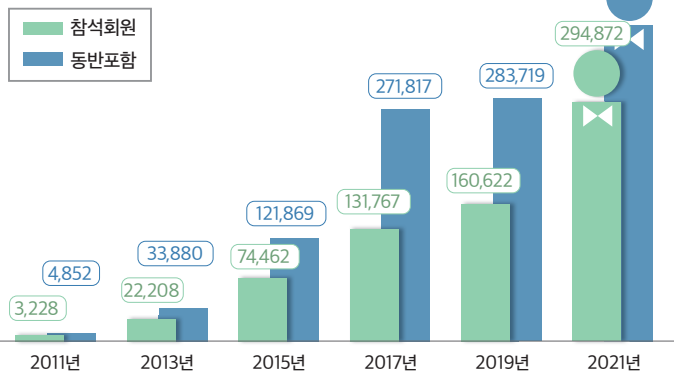
공제회 가입 대상 교직원 수 총 917,227명 중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총 757,589명으로 약 82.6%에 이릅니다.



2021년 문화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The-K 행복서비스 연도별 문화행사 참석회원

[2021년도 말 기준, 단위: 명]



회원님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The-K 행복서비스 운영을 통해 공연·도서·영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문화행사를 선보인 2011년 이후로 더 많은 회원님들께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꾸준히 행사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위주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약 29만5천여 명(동반포함 총 38만9천여 명)의 교육가족이 문화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행사는 9만4천여 명의 회원님이 응모하신 10월 '씨네&JOY 영화예매권 행사', 그리고 8만여 명의 회원님이 응모하신 3월 '안전여가 지원 시즌2' 이벤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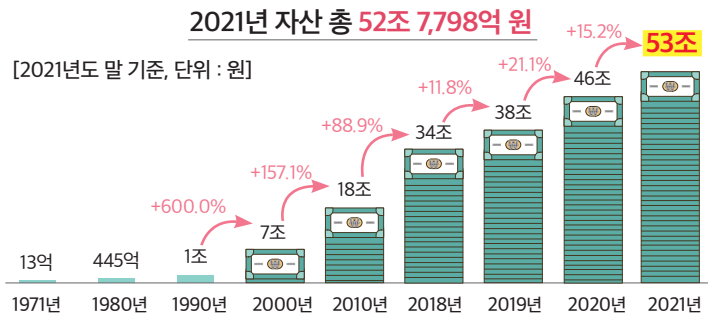
2021년 자산운용 공제회 자산은 어떻게, 얼마나 운용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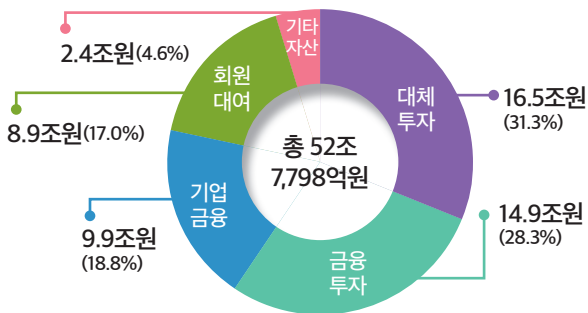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 13억 원의 자산 규모로 시작하여 2021년 말 기준 52조 7,798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건실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의 주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수익 등이며, 이 자산은 국내외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SOC·PEF·헤지펀드 등의 대체투자 부문, 회원대여 부문 등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목적은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수익성·안정성·분산투자·유동성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분산 및 대체 투자 등 다각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여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21년에는 투자 수익률 11.3%를 기록하며 자산 53조원, 준비금 적립률 110.5%라는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자산 규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2021년 말 총 자산은 전년대비 6조 9,833억 원(15.2%) 증가한 52조 7,798억 원, 목표대비 112.3%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54억 원(11.1%) 증가한 1조 58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말 자본은 41조 40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조 8,745억 원(16.7%)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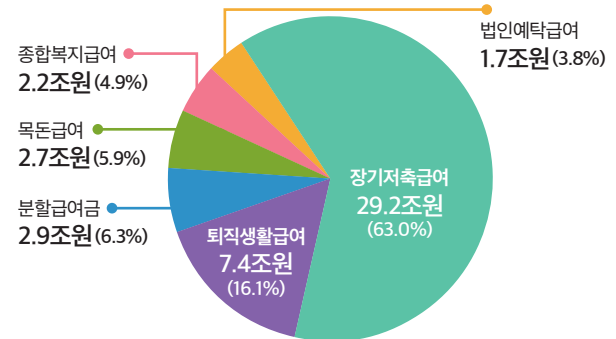


사업부문별 자산 현황



2021년 말 사업 부문별 자산 현황의 비중 순으로는 대체투자 (31.3%), 금융투자(28.3%), 기업금융(18.8%), 회원대여 (17.0%) 그리고 기타 부문입니다.

제도(급여)별 준비금 현황



2021년 말 제도(급여)별 준비금 현황은 총 46조 2,961억 원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가 각각 63.0%, 16.1%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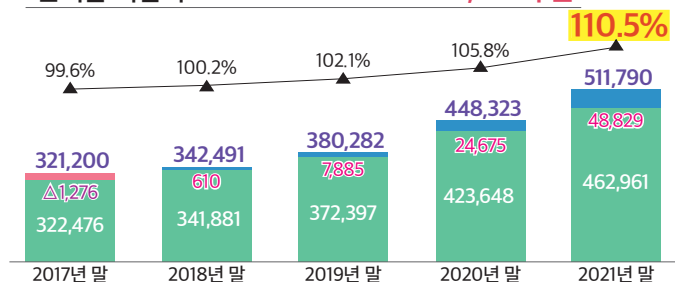
연도별 준비금 적립률

2021년도 말 기준 모든 회원이 퇴직, 탈퇴 등의 사유로 급여금 청구 시 본회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납입 원금과 누적 이자는 46조 2,961억 원이나 현재 51조 1,7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비율 즉, '준비금 적립률'은 110.5%로 재무 안정성을 한층 더 확고히 하여 최고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준비금 적립액(필요준비금+적립초과액) 51조 1,79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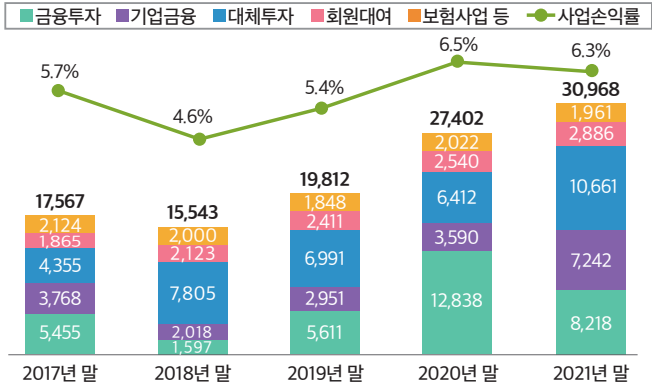


최근 5개년 사업손익

※ 사업손익률 : 사업손익÷당해년도 총자산 평균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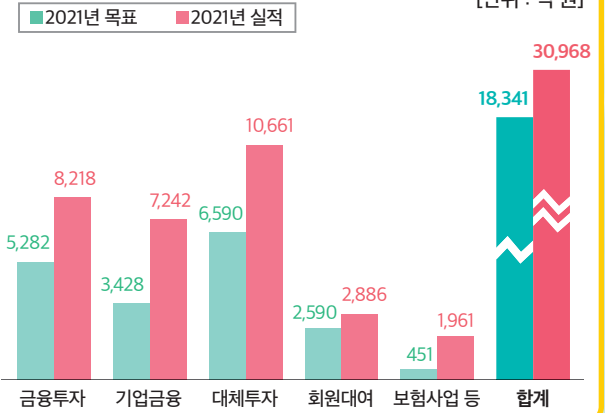
사업손익 3조 968억 원

[단위 : 억 원]



2021년 부문별 손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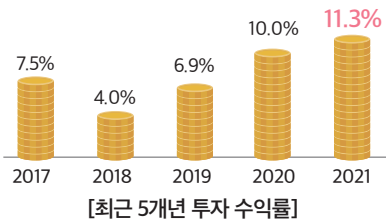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2021년 투자 수익률

11.3% 달성... 안정적 수익 창출

5개년 평균 투자 수익률 : 7.9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불안정한 금리 등으로 높아진 시장 불확실성과 연중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선구적으로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 및 자산 운용체계의 선진화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한 결과 2021년 투자 수익률 1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10.0%보다 1.3%p 상승한 수치이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으로, 운용수익은 4조3,831억 원이었습니다.

자산 군별로는 대체투자 수익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8.0%p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내외 기업금융,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 비중 역시 2021년말 기준 62.4%로 자산군 중 가장 높았으며, 수익금도 3조1,349억 원으로 지난해 운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12.8%를 기록, 비중은 20.4%로 전년 18.9%보다 늘었으며, 수익금은 9,845억 원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3.1%, 비중은 14.8%를 기록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보수적 투자 원칙을 준수한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2022.2.13)

해외주식·대체투자 덕본 큰손 '휠휠'
교공 목표수익률 두 배 웃돌아
PEF통한 투자 매각자의 쌀, 해외서 선방 주식수익률 13%

이데일리

(2022.2.14)

교직원공제회 지난해도 두 자리
수익률.. 대체투자 호조

연합인포맥스

(2022.2.16)

교직원공제회 지난해 수익률 11.3%..
비중 62% 대체투자 '열일'

아주경제

(2022.2.21)

큰손 '공제회' 투자수익률 올해도 선방
... 대체투자·해외주식 '쌍끌이'

2022년도 공제회는 어떤 미래를 그릴까?

신뢰 받는 금융·복지 서비스로 교육 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5일, The-K 타워에서 제11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 사업별 예산안 등을 종합한 「2022년도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제112회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2021년도 결산보고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 자산은 약 56조 5,000억 원, 총 회원 수는 약 89만 6천여 명으로 확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100년의 시작, 2022년 올해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교직원 금융·복지기관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육 가족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과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겠습니다. 평생 함께하는 금융·복지서비스,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자산 운용,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매년 성장하는 공제회,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최고의 금융·복지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

ONE & ONLY

오직 교육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생명보험

● 든든하고 안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종합복지급여' 특집 편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와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던 1990년대 중반.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기능을 강화한 신규제도들을 개발했고, 1995년 9월 1일 교육 가족들만을 위한 보험제도 '종합복지급여'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탄생한 '종합복지급여'는 공제회의 안전성과 공신력, 교직원 전용 위험률과 낮은 사업비 적용으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다양한 상품과 맞춤형 보장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65만 건의 계약과 신뢰 척도라 할 수 있는 보험계약 유지율 98.3%를 기록하며 최근 자산 3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제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교직원 특화상품을 개발하며 오랜 기간 교육 가족들의 믿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종합복지급여'의 27년 역사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교직원 맞춤형 상품 특성,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최근 달라진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㉔



CHECK 1

27년간 교육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온 - 공제회 보험, 종합복지급여의 역사

종합복지급여는 회원들이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기능 수행과 회원 복리향상에 초점을 맞춰 1995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 및 시행되었습니다.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안전하면서도 혜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종합복지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회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설계와 저렴한 부담금으로 고액의 사고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종합복지급여 추가 상품을 개발하고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1998년 3월부터 만기환급급여를, 1999년 3월에는 단체보장급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는 배우자 가입을 확대하고 특약 등을 보장내용에 추가하며 상품 다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00년 5월에는 종합복지급여 TM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채널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2003년 교육가족종신공제 출시로 보험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회원의 니즈에 충족하고자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었고, 2007년 급변하는 보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종합복지급여 차세대IT시스템을 구축하며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갖추었습니다. 2015년에는 보험BI 및 마스코트 '히어로쌤'을 제정하며 종합복지급여 20주년 기념식 및 보험 브랜드 선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보험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행하며 회원에게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1995. 09. 01. 종합복지급여 시행, 보장성급여 출시
- 1999. 03. 01. 단체급여 출시
- 2000. 05. 보험가입 TM팀 발족
- 2003. 11. 01. 교육가족종신공제 출시
- 2009. 04. 01. 교육가족종합공제 출시
- 2010. 06. 09. 맞춤형 단체보험 교직원 스마일복지공제 출시
- 2013. 04. 24. FC, 재정위원으로 명칭 변경
- 2015. 01. 보험 BI(Brand Identity) 및 마스코트 히어로쌤 제정
- 2015. 08. 21. 종합복지급여20주년 기념식 및 보험 브랜드 선포식
- 2017. 11. 01. 보험 헬스케어 서비스 시행
- 2020. 02. 20. 종합공제, 더블업종합공제, 시니어종합공제, 자녀종합공제 출시
- 2021. 04. 26. 간편가입종합공제 출시

2015 보험 브랜드 캐릭터 히어로쌤



2018년에는 보험사업 분리회계를 시행하여 보험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많은 교육 가족들이 믿고 꾸준히 선택해주신 결과, 보험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국교직원 공제회 종합복지급여는 보유건수 65만 건(2021년말 기준), 2022년 현재 자산 3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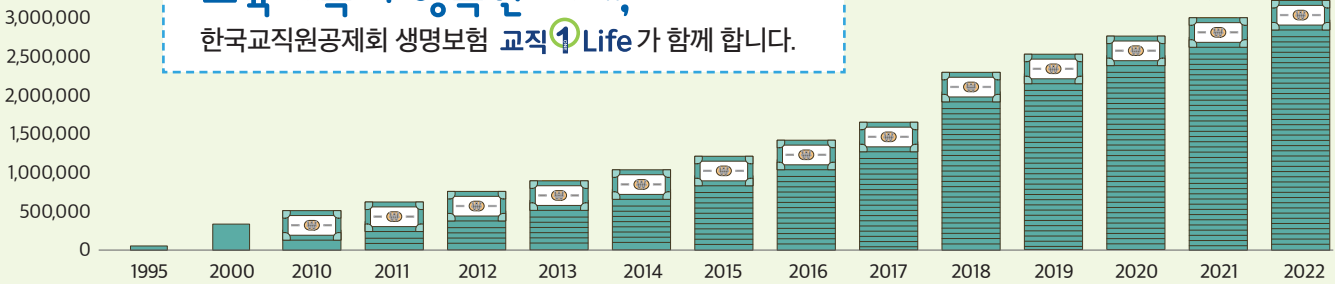
연도별 보험사업 자산 현황



3조 돌파

[단위 : 백만 원]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1Life**가 함께 합니다.



특히 회사와 상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 척도라 할 수 있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98.3%, 민영보험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개인 보험 상품의 보장대상은 교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갱신행 상품 위주인 민영보험사와 달리 대부분 비갱신행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됩니다.* 단체 보험 상품은 각 단체의 니즈를 만족하는 맞춤형 상품으로 재직 기간 중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속건강공제(2104) 등 갱신행 상품 가입 시 갱신 시마다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CHECK 2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위험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



공제회는 보험제도의 기본에 충실하게 사망·질병·노화 등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유병력자도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보험 신상품 라인업을 강화하여 현재 총 14종의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일부 갱신행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비갱신행 보험으로,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공제회 인기상품은 종합공제, 두번보장암공제 및 자녀종합공제입니다.

종합공제

All-in-One! 개인별 맞춤설계가 가능한 교육가족 전용 종합보험

종합공제는 사망, 입원, 수술, 암 진단, 각종 치료비용 및 교직원특화담보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All-in-one 상품으로, 필요에 따라 각종 선택특약을 통하여 맞춤별 설계가 가능합니다.



두번보장암공제

첫 번째 암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암도 걱정없는 암종합보험

두번보장암공제는 첫 번째 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종합보험으로 암 진단, 암 사망, 암 치료 비용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완벽대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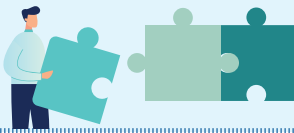
출생부터 100세까지, 건강부터 교육까지! 내 아이를 위한 첫 번째 명품보험

자녀종합공제는 출생부터 100세까지 자녀의 건강과 교육자금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녀전용 종합보험으로,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금형으로 가입 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간보험료를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교육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공제와 마찬가지로 선택특약을 통하여 성장기입원/수술 뿐 아니라 성인병, 암, 중대질병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모든 위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생명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구분		상품명
교직원 라이프 스타일과 은퇴 후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종합보험	종합공제, 더블업종합공제
	건강보험	두번보장암공제, 실속건강공제, 실속암공제(TM전용), 치매공제
어린이 안전사고와 각종 질병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어린이보험	자녀종합공제, 실속자녀공제
제2의 인생, 시니어 라이프 및 고령층을 위한 보험	시니어보험	시니어종합공제, 시니어암공제
유병력자, 고령자도 3가지 고지 항목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보험	간편가입보험	간편가입종합공제, 간편가입건강공제, 간편가입치매공제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QR코드로 이동하여 맞춤형 보험설계를 이용해보세요.

맞춤형 보험설계 바로가기 ▶



CHECK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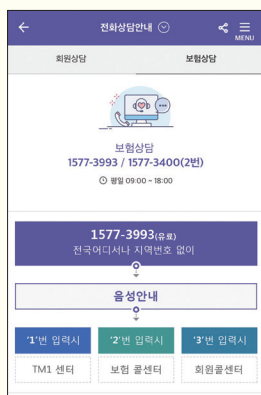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높은 보험 자산 운용



공제회 보험제도는 가입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장래 보험금(사고급여금·해지환급금·만기급여금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매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험사업 분리회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물론 공제회 특성을 반영한 보험부채 재평가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쌓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험사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How-to

종합복지급여 가입하는 방법



① 보험가입상담신청



공제회 홈페이지
↓
보험
↓
교직1 Life 소개
↓
보험가입상담신청

② 재정전문위원 찾기



공제회 홈페이지
↓
보험
↓
교직1 Life 소개
↓
재정전문위원 찾기

③ 보험 상담 관련 문의

☎1577-3993
☎1577-3400(2번)

보험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더욱 편리해진 종합복지급여 비대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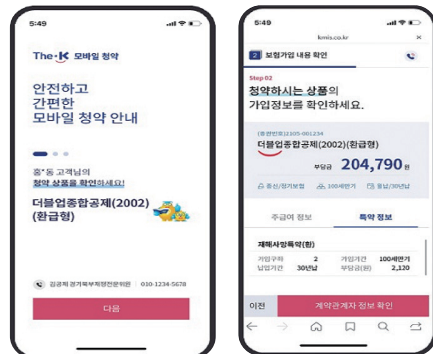
CHECK① 보험콜센터 이원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험콜센터(TM) 긴급폐쇄를 대비하여 기존 서울(종로)센터만 운영 중이던 보험콜센터를 인천센터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콜센터: 1577-3400(2번) / *보험가입상담: 1577-3993

CHECK② 모바일 청약 시스템 오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시대에 맞춰 22년 1월 3일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모집인과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은 회원이 가입신청을 원할 경우, 담당 모집인이 보낸 URL 접속을 통해 직접 가입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모바일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서나 편하게 모바일로 보험 가입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CHECK③ 보장 분석 프로그램 개발

회원 보험가입 상황에 기반한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종합복지급여 청약 의뢰시 회원의 기가입 보험 상품 및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본인동의를 간편하게 진행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ECK④ 보험금 청구 편의성 확대

21년 6월 1일 보험금 청구 채널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정액보험금 및 실손 의료비의 사본 접수 가능금액을 3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및 시행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 원본 발급비용을 절감하고 회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CHECK⑤ 모바일 안내문 확대 시행

품질보증제도 안내, 납입완료 안내문 등 종이로 발송되던 안내문을 모바일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발송 전환하여 시행하였고, 점차적으로 9종까지 안내문 수를 확대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 '페이퍼리스'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며, 안내문의 열람률을 높이고, 종합복지급여 상품의 신속한 정보제공 및 회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HECK⑥ 언택트 종합복지급여 상품 소개



공제회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종합복지급여에 대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가족만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완벽정리! 쌤테크 1탄](#)



교직원라이프
알아보기

회원님과 함께 만드는 The-K 매거진,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는 2021년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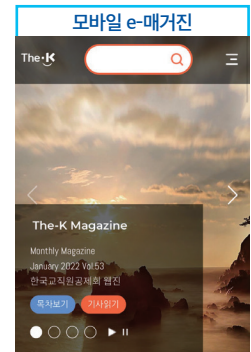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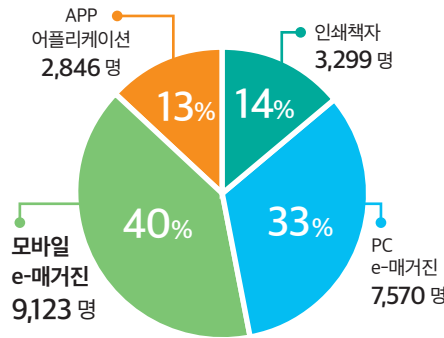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기간행물이자 교육가족을 연결하는 고품격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The-K 매거진'에 대한 회원님들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해나가고자 지난 2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6,191명의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 참여해주셨고, 진솔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콘텐츠별 선호도, 접근에 대한 편의성, 강화되길 바라는 코너들,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각 문항별 결과를 함께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담아보았습니다. "혁신과 성장을 위해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고품격 매거진"이라고 격려해주신 회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제출해주신 모든 의견들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 한 해도 'The-K 매거진'은 교육 가족만을 위해 더 성장하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구독경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The-K 매거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The-K 매거진, 어떤 형태로 구독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교육 가족께서는 '모바일 e-매거진'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항에 응답해주신 분들은 총 9,123명,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시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응모가 간편하다는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570명의 교육 가족들께서 'PC로 보는 e-매거진'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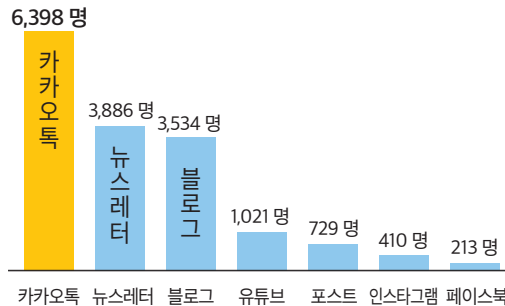
2. 공제회 온라인미디어 채널 중 어떤 채널로 The-K 매거진을 알게 되셨나요?

The-K 매거진을 처음 알게 된 경로로 가장 많이 응답해주신 채널은 '카카오톡'입니다.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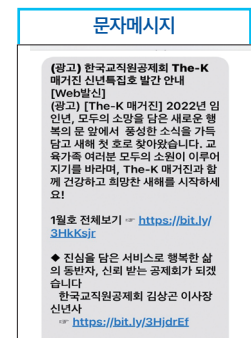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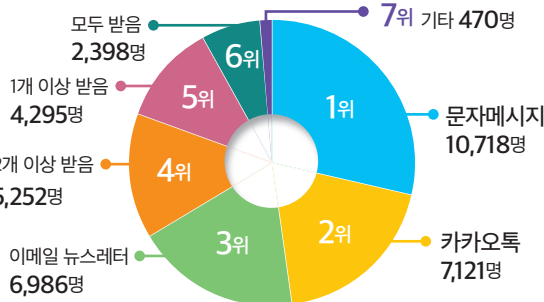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공제회 이메일 수신 동의 회원님께 보내드리는 'The-K 뉴스레터'와 공제회 SNS의 허브채널인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3. 회원님께 보내드리는 The-K 매거진 발간 안내,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The-K 매거진 편집실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 회원님께 매월 발간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님들께서 주로 '문자메시지' 채널을 통해 발간 안내 소식을 받아보고, 확인하시는 것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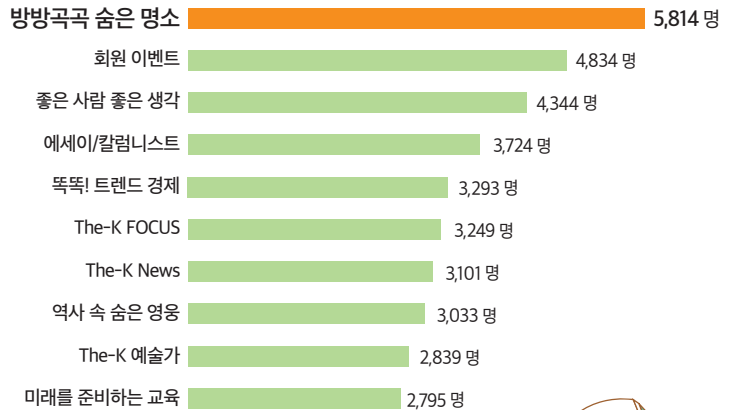


콘텐츠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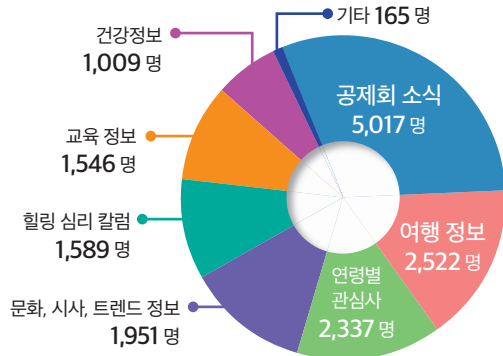
The-K 매거진, 어떤 콘텐츠가 가장 좋으셨나요?

1. The-K 매거진, 어떤 코너가 가장 유용하셨거나 기억에 남나요?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명소와 식도락 정보를 통해 회원님들이 잠시나마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교육계를 비롯한 덕망 있는 인사들의 멘토링 인터뷰 [생각 나누기]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아이들과 성장하는 선생님들의 공감 에세이인 [생각 나누기] '에세이/칼럼니스트', 경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알기 쉽고 유익한 경제 소식을 전하는 코너, [행복 곱하기] '똑똑! 트렌드 경제' 순으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2. 앞으로 The-K 매거진이 더 '강화'했으면 좋을 코너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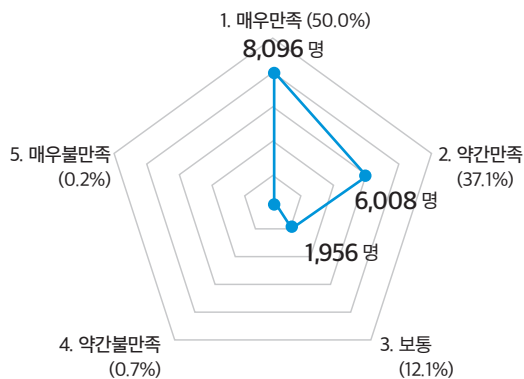


총 응답 인원 중 약 31%에 해당하는 교육 가족 분들께서 공제회 금융·복지서비스, 문화행사, 직영호텔 등 출자회사 소식을 담은 '공제회 소식'을 강화해달라고 응답해주셨으며, 그 뒤로는 국내외 여행지 소개 등을 담은 '여행 관련 정보', 각 연령별 관심사에 꼭 맞춘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밖에 공제회 투자 성과 및 운영 소식, 교직원 맞춤 재테크 칼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퀴즈,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문화정보 등 다채로운 코너들을 기타 의견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The-K 매거진 편집 기획에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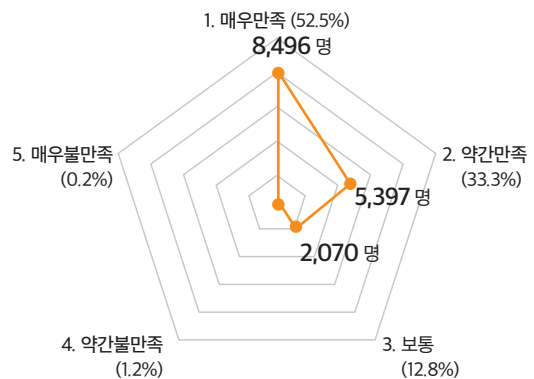
부문별 만족도

The-K 매거진, 각 부문별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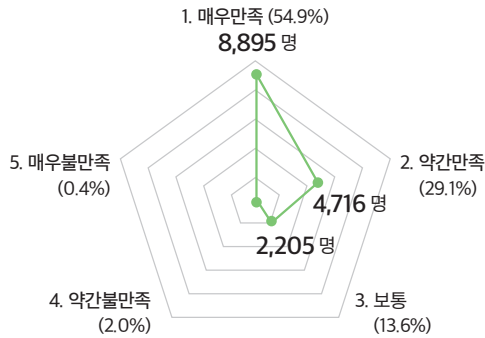
기사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4.3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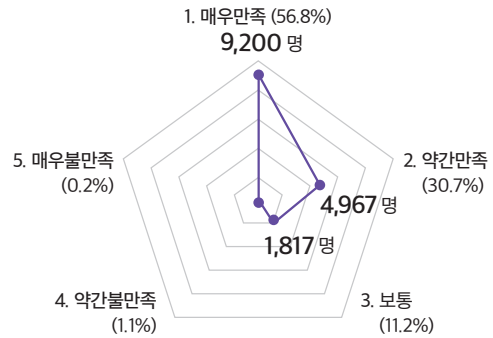
편집,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4.37점]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4.36점]



인쇄책자 외 웹(앱)진 만족도 [4.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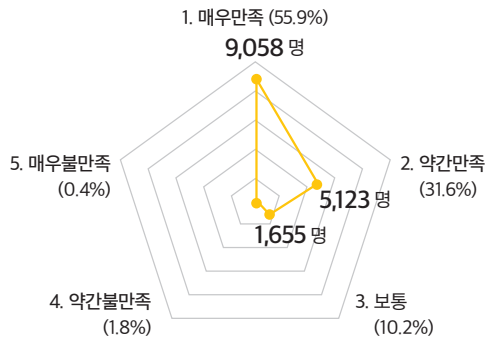


The-K 매거진 기사 콘텐츠, 편집 및 디자인,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4.3점대로, 50% 이상 '매우 만족'을, 30% 이상의 회원님들께서 '만족'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위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내주셨던 항목은 PC·모바일 The-K 매거진 홈페이지인 웹진·어플리케이션 앱진에 대한 종합 만족도로, 약 87.5%의 회원님께서 '매우 만족'과 '만족' 항목을 선택해주셨으며 5점 만점에 4.43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주관식 의견들도 모두 읽고, 참고하여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 보기 쉽고 깔끔한 편집 디자인, 편리한 접근성, 웹진·앱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The-K 매거진과 함께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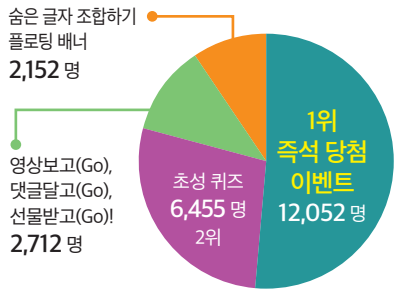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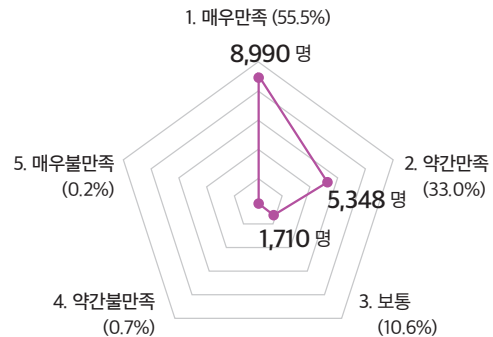
이벤트 & 소통 노력

다양한 이벤트들과 소통 노력은 어떠셨나요?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 [4.4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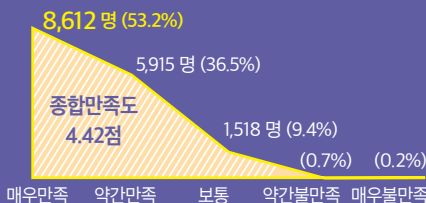


회원과의 소통 노력 [4.43점]



웹진과 앱진에 더 즐겁게, 더 자주 들어와 보시고, 콘텐츠들을 재미있게 확인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벤트들에 대한 만족도는 약 4.41점으로 약 88% 회원님들께서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만족하신 이벤트는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즉석 당첨 이벤트', 그 다음으로는 기사를 함께 읽고 정답을 맞춰보는 '초성 퀴즈 이벤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벤트에 당첨되기 어렵다며 더 많은 회원님들이 고르게 당첨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The-K 매거진이 매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면에 수록·개선하며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4.43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The 만족하고 The 감동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The-K 매거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16,191명 중 14,527명의 회원님께서 '매우 만족', 그리고 '약간 만족'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에 2021년 The-K 매거진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이라는 지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회원님들이 만족하고, 감동하시는 매거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을 구독하시며 느꼈던 점이나 바라는 이야기들, 회원님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의 마지막 주관식 문항에 남겨주신 회원님들의 따뜻한 고견 중 더 많은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의견들을 일부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모두 담지 못했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며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으로써 전국 교육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소식과 알찬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K 매거진 제작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늘 다양한 읽을거리로 도전하도록 자극제가 되어주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받는 즐거움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 '미래잡(job)자' 나 'DIY 리사이클링' 같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시도해 볼 수 있는 코너들을 꾸준히 게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K 매거진, 정말 열일 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최근 1-2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처음엔 이벤트 참여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좋은 칼럼과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찾아서 들어갑니다!^^

6번 콘텐츠 선호도에서 5개 항목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만큼 알차고 도움이 되고, 모두 읽어봐야 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가끔 당첨의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행복 굿하기 내용을 기대합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90여만의 방대한 회원들을 위해 늘 고른 분야, 고른 연령대, 고른 시도로 알찬 기사 준비해주시는 편집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애독자가 되겠습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습, 멋집니다!

PC로 주로 보다가 작년부터 잡지로 구독 중인데, 훨씬 가독성이 높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PC웹진 역시도 가독성이 좋지만요! 퀴즈도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매거진을 정독할 수 있게끔 해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이벤트가 나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사의 범위가 넓고 (교육 관련부터 역사, 심리까지!) 특히 은퇴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는데 덕분에 잘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The-K 매거진 잘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통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좋네요. 소통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의 발맞추어 적응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나 이슈 등도 더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The-K 매거진의 내용 중 퇴직 회원에 대한 배려가 좀더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구독지와 비교해 봐도 우리 The-K 매거진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회원 모두 인정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이벤트에 당첨이 잘 안됩니다.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K 매거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들 또한 다양해서 유익한 정보들도 알 수 있고, 교직원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만들어지는 매거진이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The-K 매거진은 교육과 생활 전반에 관해 알 수 있는 구독형 콘텐츠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알찬 내용 및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가깝고도 먼 교육가족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가고 내가 가입한 공제회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공지와 내용들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서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제회 직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여 콘텐츠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선생님들께 많은 혜택들에 대해 널리 알려 선한 마음 함께하려고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화이팅!

신규 회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신규가입 이벤트, 4월 1일 ~ 30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회 대표 저축제인 장기저축급여에 올해 새롭게 가입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신규가입 이벤트'가 진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4천 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카페라테 Tall) 1매를 제공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이다. 본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회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금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약 76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 4월 5일 ~ 18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온·오프라인 콘서트에 회원들을 초대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초대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줌 행사를 병행, 다원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일리, 팬텀프렌즈, 소향 등이 출연하여 클래식, 대중가요, 팝페라 등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펼쳐지는 고품격 문화 행사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5월 12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현장감을 직접 느끼고 싶은 회원님을 위한 현장 공연에 회원 300명(1인 2매, 참가비 1인 2만 원)과 집에서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다원 중계(ZOOM)에 회원 3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별도의 비대면 레크리에이션 사회자 진행을 통한 댓글 이벤트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본 공연은 5월 12일 19시, 공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동시 생중계되며, 응모 기간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이고 당첨 발표일은 4월 26일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상기 행사 및 일정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월 베스트셀러를 만나는 시간

북&JOY 4월 행사, 회원 5,500명에게 희망 도서 증정

매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북&JOY 도서 증정 행사가 4월에도 찾아온다.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 ▲스테디셀러 10종 ▲매월 선정되는 테마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 5,500명에게 희망 도서 1인 1권을 증정하며, 당첨 발표일은 4월 28일이다. 당첨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5월 중 배송된다. 한편, 북&JOY 도서 증정 행사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5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월 15일 여의도 본사 The-K 타워에서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경영전략 기획실장의 약사보고, 공로상 등 시상식, 창립 51주

년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작년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산 53조 원, 준비금 적립률 110.5%라는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하여 재무안정성을 한층 더 확고히 했다”라며 “우리 공제회는 교육가족과 함께 했던 지난 50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주춧돌 위에 힘찬 변화의 혁신을 통해 함께 할 새로운 50년의 비상을 준비하여 지속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롤모델 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립 51주년인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하고 회원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공제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평생 함께하는 금융·복지서비스 ▲미래를 위한 내실 있는 자산운용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중점 전략 목표로 밝혔다.

경북·강원 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원 기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 지역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피해지역의 복구 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공제회 임직원 모두가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결성한 ‘노동조합 러브펀드’도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발생 시에도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복지제도 및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복지제도 자문, 복지시설 등의 할인제공 추진 및 공동 홍보 협조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투자 도모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개최·초청 및 학술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장래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하여 2022년 2월말 기준 회원 156만, 공제부금 1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제도,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가 구축될길 희망한다”며, “양 기관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왼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he-K 출자회사 4월 소식



The-K호텔서울

청정호텔, 넓은 정원에서 안심하고 즐기는 우첼로 가든 바비큐 프로모션



The-K호텔서울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넓은 정원 우첼로 가든에서 여유로운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우첼로 가든 바비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테이블 간격으로 소중한 지인들과 안심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직접 구워 먹는 셀프 바비큐로 운영하며, 양갈비 1kg 8만 원, LA갈비 600g 8만 원, 소고기 모듬·안심·등심·갈빗살·부챗살 구이가 600g 기준 7만 원, 돼지고기 모듬·삼겹살·목살·갈매기살 구이가 600g 기준 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셜 메뉴로는 소시지·왕새우구이를 2만30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식사를 이용하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부위를 골라 맛볼 수 있다.

또한, 개인 SNS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우첼로 가든 바비큐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선착순 5명에게 생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하며, 5월 29일까지 SNS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바비큐 운영 시간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18시~21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점심 12시부터 15시까지, 저녁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모든 식사는 사전 예약제이며, 공제회 회원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The-K호텔서울에서는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객실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요일)은 7만7000원, 주말(금~토요일)은 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5월 5일~7일, 6월 3일~5일 제외)

또한, 답답한 사무실과 재택근무의 한계를 벗어나 12시간 동안 업무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호캉스 프로그램인 '데이앤워크케이션 (Day&Work+cation)'을 진행한다.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오전 9시 체크인, 당일 21시 체크아웃이다. 피트니스클럽 이용권 1매가 제공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회원 특별가로 8만8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단, 5월 5일~7일, 6월 3일~5일 제외) 답답한 일상, 실내에서 벗어나 The-K호텔서울에서 진정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힐링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꽃망을 틔우는 싱그러운 4월, 벚꽃 스토리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4월, 공제회 회원을 위해 '벚꽃 스토리 패키지'를 진행한다. 패키지 구성은 스탠더드 객실 1실, 조식 2인 이용권이며 이용금액은 요일에 따라 다르나 10만 원부터 시작된다. 패키지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진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보문관광단지에서 봄바람의 싱그러움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꽃이 가득한 전경을 눈으로 즐기고, 피부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The-K호텔경주에서는 아름다운 벚꽃 전경뿐만 아니라,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순수 온천수로 피부 혈행 향진, 류머티즘, 신경통, 창상 요통, 피부병 및 외상 후유증, 피부미용 등에 효험이 있고, 천연나트륨, 염소, 유황 성분이 함유된 수소이온 농도 9.12pH의 천연 알칼리성 온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와 소나무 숲속에서 피톤치드가 풍부한 노천온천도 함께 누리며 치진 몸과 마음에 벚꽃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타 문의 및 예약은 호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노란 수선화가 가득한 한국의 스위스,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이벤트



구례 지리산치즈랜드는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초원, 노란 별 같은 수선화들이 총총 떠 있어 금방이라도 귀여운 요정들이 등장할 것 같은 아름다운 동화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이국적인 스위스 알프스 느낌으로, 송아지 우유 먹이기, 동물 먹이 주기, 풀 썰매 타기 등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4월, 봄을 맞이하여 공제회 회원을 위해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아직도 안가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리산치즈랜드 입구의 포토존을 찾아서 인증사진 1장, 그리고 수선화를 배경으로 인증사진 1장, 총 2장을 촬영해 당 호텔 공식 이메일 주소(jirisan8100@naver.com)로 보내주면 된다. 이벤트 완료 시 구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산수유 에이드 음료 2잔을 제공한다. 4월 한 달간 본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 고객에 한해 한 객실당 1인만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공제회 회원을 위한 봄꽃 가득 특가 패키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공제회 회원이 봄꽃 나들이로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봄꽃 가득 패키지' 특가를 제공한다. 봄꽃 가득 패키지를 이용하면 제주의 봄 풍경을 재해석하여 비누에 고스란히 담은 제주 꽃이 가득 담긴 수제 비누를 받아 볼 수 있고, 특히 공제회 회원이라면 특가 적용으로 일반 고객보다 훨씬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 회원으로 예약하면 산 전망 스탠더드 객실(1박) 기준으로 제주 풍경 수제비누 1개, 그리고 수영장 2인 이용권을 포함해 주중 기준으로 15만4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VAT 포함) 제주의 봄꽃 풍경을 담은 수제비누는 100% 자연 오일로 만들어져 숙성된 자연 비누(Cold Process)로 천연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피부 보습 효과가 좋고, 깨끗한 클렌징과 촉촉한 보습으로 데일리 세안용과 바디용으로 사용하기 좋으며, 모든 피부용으로 제작되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공항에서 10분 내외, 제주항에서 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고 제주도 어디라도 편히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바다 전망에 투숙 시 공항으로 오가는 비행기와 멋진 바다 뷰를 구경 할 수 있고 산책과 조깅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들이 이루어져 있다. 호텔 주변에는 동문시장과 용두암이 가까이 있어 기념품 쇼핑과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풍부하다. 또한 호텔 내부 지배인에게 다양한 장소를 안내받아 편안한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약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호텔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호를 읽고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의 새로운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매월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2월에도 총 678분의 회원님께서 정성스러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마무리와 시작이 공존하는 시기에 「The-K 매거진」 2월호를 통해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으셨다는 의견, 몰랐던 주제나 새로운 소식을 읽으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계시다는 이야기에 더 좋은 기획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에게 「The-K 매거진」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발전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잘 반영해 더 유익하고, 많은 회원님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29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관련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 정보, 선후배와 동료의 소식 등을 통해 저 또한 제 삶을 반추해 보곤 합니다. 금전적 혜택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선생으로서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성 회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방학 기간에 「The-K 매거진」을 읽으면 바빠 돌아가는 학기 중에 만나는 것보다 여유가 있어 좋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의 수확자로서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흐뭇했고,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교사로서 퇴직 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모처럼의 휴식과 더불어 「The-K 매거진」을 만나 힐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순 회원 문경여자고등학교

항상 다양한 정보와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The-K 매거진」, 이번에는 또 어떤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들이 있을까 늘 기대하게 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는 여러 교직원들의 고민과 의견, 나아가 앞선 방향의 미래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깨알 같은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지요.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봤는데, 「The-K 매거진」 앱을 다운로드해 보니 훨씬 편리합니다.

바라는 점이라면 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학교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모습을 다채롭게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역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도 궁금합니다. 늘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The-K 매거진」을 볼 때마다 정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서*선 회원 서울대학교병원

월초가 되면 항상 「The-K 매거진」 문자를 기다립니다. 이벤트 당첨의 행운이 잘 따르지는 않지만 매거진을 읽으면,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 뿐만 아니라 좋은 글,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입니다. 아직 이렇게 좋은 「The-K 매거진」을 모르는 분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제회 더 많은 회원님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나누면 두 배가 되니까요.

강*선 회원 용이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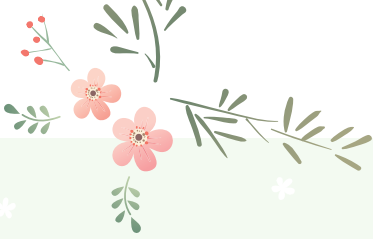
이번 2월호에는 제가 정말 필요했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사와 추석, 설날 차례를 지낸 후에 남은 명절 음식을 늘 처리하기 힘들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기는 하는데, 한번 열리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기름 전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더라고요. 「건강한 집밥」에서 소개한 나물 케사디아, 전 피자, 가래떡 알리오 올리오를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나물 케사디아는 바로 해 먹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홍*진 회원 온양초사초등학교



매월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는 「The-K 매거진」은 교육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교육 관련 뉴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매번 매거진을 읽을 때마다 활력을 얻곤 합니다. 특히 2월호에 소개해 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 생활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평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납입하고 있던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돈급여도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목돈급여에 대해서도 꼭 알려주세요. 항상 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교사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조 회원 양주 봉암초등학교



마냥 길게만 느껴지던 방학이 끝나가고 새로운 학생들을 맞을 신학기 준비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른 올림말로 인사 나누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내용이 지금의 저에게 너무 딱 맞아 놀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첫 소개는 물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입해 보는 2022년을 보내려 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뵈기를 바랍니다.

박*현 회원 서산 중앙고등학교

2월호를 읽으며 「The-K 매거진」이 현재 세대와 과거 세대 자원들을 통합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퇴직 후의 삶과 퇴직 증후군으로 인한 고민을 비롯해 미래 교육 수단에 대한 고민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고 복잡한데, 「The-K 매거진」을 통해 선배들의 고민을 미리 만나고 후배들의 이야기에 웃음 지으며 전 세대가 통합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항상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석 회원 강릉 성덕초등학교

‘이달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The-K 매거진」을 펼쳐 봅니다. 역시나 읽을거리가 풍족하고, 무엇보다도 읽기가 편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읽고 나면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교양이 쌓인 것 같고, 동료들과의 대화거리도 많아집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요즘 같은 ‘머니 러시’ 시대에 다양한 테크에 대해 짚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쭉쭉 좋은 매거진 부탁드립니다.

박*준 회원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이메일을 통해 매월 만나는 「The-K 매거진」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는 바쁜 가운데서도 눈길을 끕니다.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는 ‘저 때는 나도 그랬지’라며 지나온 추억을 회상하며 맞장구 치게 됩니다. 또 ‘방방 곡곡 숨은 명소’는 한 번 가봐야겠다 싶고,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The-K 매거진」을 기다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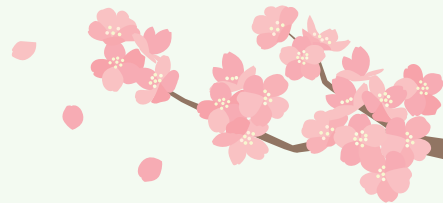
채*권 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년에도 여러 회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거진을 받아보며,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상 주변에 두면서 시간이 되면 자주 반복해 읽고 있습니다. 생활을 보람 있고 윤택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이 특별하고 흥미롭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새로운 보험 소식을 자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타 보험과 비교해 저렴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회원 前 전남 장평초등학교

이번 2월호에서 가장 유익한 내용은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교직원들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교직원이 일정 금액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음 호에는 일반 은행과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가 일반 은행보다 이율이 높지만 공제회에서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제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규 회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몰랐던 역사 속 위인이나 본받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고민상담소나 여행 명소, 요리법이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좋고, 회원들의 의견을 매월 적극 수렴하는 모습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알차고 유용한 매거진이에요. 매달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다려집니다.

김*지 회원 안동대학교

지난 학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2월에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는데, 「The-K 매거진」에서 소개해 준 여행지를 보고 심에 대한 조연을 들으며 힐링했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이 공존하는 시기에 잘 어울리는 위로와 위안이 되는 좋은 기사가 가득 찬 알찬 2월호였습니다. 2월 봄방학을 이용해 집에서는 리사 손 교수가 소개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 공부해 보고, 휴가를 내 여수 겨울 바다 여행을 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학년도를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고, 2022학년도 를 힘차게 시작할 힘을 얻게 도와주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연 회원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매월 초 문자로 「The-K 매거진」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하던 일도 멈추고 잡지를 읽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 퇴직한 저에게 변화하는 세계를 알려주는 소식통이나 다름 없습니다. 2월호 「역사 속 숨은 영웅」의 주인공 이상설 선생님의 수학자로서의 업적 등을 더 자세히 알려줘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바뀐요」를 통해 웃어른에게 인사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배우고, 「DIY 리사이클링」의 청바지로 미니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보내준 회원 의견도 자세히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The-K 매거진」을 사랑하는 곱고 긍정적인 마음이 보기 좋습니다.

김*애 회원 前 인의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글을 제공해 교직원들에게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시고 반영하러 애써주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라 회원 이리고천초등학교

우리 부서 장학사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교육이 가져야 할 인간다움의 순간'을 읽고 혁신적으로 변화 중인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전문직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생각을 나누고, 배움을 더하며, 행복을 곁하고, 언제나 함께하며 더욱더 소통하는 「The-K 매거진」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옥 회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한 꼭지 한 꼭지 정성 들여 구성하신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무심코 쓰고 있는 말을 좀 더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준 부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선도 교사로서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형 수업 이야기에 대한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혜 회원 첨단고등학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이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끝맺음의 시기인 2월입니다. 새로이 학교 임직 발령을 받고, 5년 동안 지내던 학교 교감 선생님께 축하 인사를 받고 나니 '아, 이제 여기서는 이별이고 새로운 학교에서는 시작이구나!'를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올려보내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일이 이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이 설레고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2월호 「The-K 매거진」을 읽다 보니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신학기 '마음잡' 기사가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아마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께서 같은 마음 이시지 않을까요? 교직원공제회 마음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회원님께서 한 해 시작을 안정되고 여유로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K 매거진」을 읽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떨리는 새 학기! 잘해보자, 2022년!

정*슬 회원 시흥월곶초등학교

다른 좋은 기사도 많았지만 2월호는 2021년 「The-K 매거진」을 정리하는 기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적는 회원 의견도 데이터화해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회원분들처럼 장기저축급여에 관심이 많아 자주 클릭해 봤습니다. 즉석당첨 이벤트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람 회원 고려대학교

「The-K 매거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를 다루는 매거진은 요즘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더욱 정독하게 됩니다. 퇴직자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보험 설계에 관한 정보도 소개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석 회원 前 목포목암중학교

매월 유익한 정보 제공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거진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커피 트럭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벤트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무하는 학교에 근사한 커피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무래도 제가 근무하는 작은 학교보다는 큰 기관에서 더욱 빛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소한 이벤트도 기대해 봅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름에 걸맞게 경제와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가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련 회원 김제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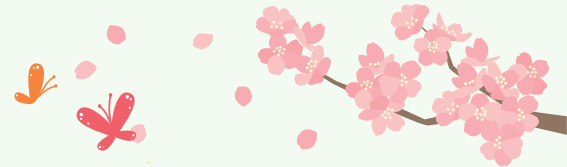


매월 알찬 소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월호에서는 2021년도에 발간된 매거진을 돌아보고 다양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한 기억이 새롭네요. 눈에 익은 표지를 보며 즐거웠습니다. 기존의 정적인 매거진의 한계를 넘어 웹에서 동적으로 만나는 매거진을 보며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갑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로 회원 청원초등학교

이번 2월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게는 특히 두 기사가 유용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학 문제까지 풀이해 주는 AI 앱 등 시가 널리 쓰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AI의 대략적인 특성이 어떻게, 우리 교육에서 AI를 어떻게 다루고 교육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똑똑! 트렌드 경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기곤 하는데, '스크루플레이션'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 스크루플레이션이더군요. 경제연구원님이 직접 글을 쓰셔서 그런지 쉽고 정확하게 잘 읽혀서 좋았습니다. 계속 좋은 정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모 회원 범박고등학교





「The-K 매거진」 2월호에 소개된 「The-K Focus」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제회와 함께 시작한 인연, 연금형 제도로 끝까지 든든하게」에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급여를 Q&A(자주 하시는 질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분할급여금 예상 금액 예시를 도표화한 점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한국고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특히 유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12월 까지 1년 동안 「The-K 매거진」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점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에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K 매거진」 파이팅!!

김*현 회원 서울대현초등학교



퇴직생활급여에 저축하고 있는 은퇴회원입니다. 「The-K 매거진」 매 호에 좋은 글이 많이 소개되어 손주들과의 대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 실린 콜롬비아대학교 리사 손 교수의 「가면을 벗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와 「눈물과 뜨거운 박수, 그 시절 졸업식」의 사진을 곁들인 기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 회원 前 서울대학교

학교에 재직할 때는 다양한 연령층의 선생님,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 생생한 현장감과 세대 변화를 의도치 않아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다양한 세대의 변화에 다소 둔감해지더군요. 매월 아무지도 알뜰하게 만들어진 매거진을 읽으면서 변화가는 세상과 유용한 경제생활에 대한 팁, 여행, 취미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됩니다. 기사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접하고,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벤트 당첨으로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다양하며 유용한 내용으로 꼭 찬 매거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맹*현 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정 회원 前 덕천중학교

2월호를 보고 The-K 크리에이터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교육, 일상, 교양, 공제회와 출자회사의 제도·혜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가족의 관심을 고려해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치는 끼와 열정에 감탄했고,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소중한 구심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지난 한 해 「The-K 매거진」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소개해 주신 기사도 좋았습니다. 지난해에 접한 기사를 차근차근 되돌아보며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회원 의견이 가장 많았던 코너,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이메일 뉴스레터 기사, 조회 수가 가장 많았던 월간호, 이벤트에 참여한 구독자 수 변화 등 주제별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을 선별해 소개해 주신 것이 흥미로웠어요. 2021년 「The-K 매거진」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 2022년 「The-K 매거진」이 들려줄 이야기가 어떨지 더욱 기대됩니다.

민*기 회원 은어울초등학교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The-K 매거진」이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월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조언과 진심이 담긴 의견을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한결같이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이마트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4월호 초성QUIZ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4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초성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2. 4. 1. ~ 4.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6.1. 이후

3월호 퀴즈 정답
QUIZ 1. 이정애
QUIZ 2. 나노사회
QUIZ 3. 장기저축급여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 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척박한 땅에서도 빨리 잘 자랄 수 있는 조림수종 개발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소나무와 포플러 육종에 힘썼으며,
우리나라 임업 과학기술에 기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 ㉡ ㉢ ㉣ 선생 (P.16~19 - 「역사 속 숨은 영웅」 참고)

2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렌 호르나이가 정립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 ㉡ ㉢ ㉣ ㉤ ㉥ ㉦ (P.36~37 - 「고민 상담소」 참고)

3 회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설계와 저렴한 부담금으로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기능 수행과
회원 복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무엇일까요?

㉠ ㉡ ㉢ ㉣ ㉤ ㉥ 제도 (P.64~67 - 「The-K Focus」 참고)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께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합니다

늘 아낌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주셨던 옛 은사님께,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동료 교육 가족에게
감사와 응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까지
「The-K 매거진」이 고스란히 전해드립니다.

-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내 용: 옛 은사님이나 동료 교육 가족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5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 보내실 곳: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전·현직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 응모 기간: 2022. 4. 1 ~ 4. 15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2022. 6. 1. 이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총 515분을 선정해
15분께는 SPC 해피통합상품권(5만 원),
500분께는 SPC 해피통합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그중 15분의 메시지를 선정해 「The-K 매거진」 5월 호와
공제회 SNS 채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응모하기

'The-K 매거진'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선물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떠 있는 The-K 로고



속 숨은 글자를 조합해 주세요!

1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3개의 The-K 로고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3가지 글자를 조합해 만든 하나의 단어를 '숨은 글자 맞추기' 배너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SPC 해피통합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4. 1. ~ 4. 30.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로고를 찾아 클릭 ▶ 숨겨진 3글자 찾기 ▶ 단어를 조합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6. 1. 이후



2

'GOGOGO 이벤트'

영상보 **GO** 댓글달 **GO** 선물받 **GO**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SPC 해피통합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4. 1. ~ 4. 15.
- 응모 방법 :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② 「The-K 매거진」 4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③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6. 1. 이후

- * GOGOGO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

봄, 피어나는 것의 계절이다. 겨우내 바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던 새싹이 봄비의 속삭임만으로 몸을 일으키고, 자연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눈과 손과 발도 분주해진다. 그리고 조금 늦게 새 학기를 맞이하듯 식물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준비를 한다.

'The-K 매거진' 4월 즉석 당첨 이벤트

초록초록한 봄날, The-K가 여러분께

새 희망을 선물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꽃들을 맘껏 누리고 싶은 봄날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 위해 싹을 틔운 새싹처럼
올 봄, The-K 매거진이 준비한 희망 선물과 함께
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응모 기간 :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6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6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2. 6. 1. 이후(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The-K의 걸음이 미래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The-K 가족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50년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100년의 거름으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합니다

E nvironment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경영 실현

- 창립 50주년 기념 더케이숲(산불피해복구숲, 교실숲) 조성
- 일회용품 절감 친환경 캠페인 전개
- 친환경 건물 인증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설비 구축

S ocial Responsibility 책임경영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회원만족 서비스 및 사회공헌 활동 실천

- 임직원 행동양식 The-K Way 내재화
- 회원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회원중심경영 강화
-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장비 지원 사회공헌사업 추진

G overnance 윤리경영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로 건강한 기업가치 창출

- 경영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ESG경영 자가점검을 통한 윤리문화 실천
- 탈석탄 금융 선언, 2050 탄소중립 기후금융 지지